

2016년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  
〔1주년〕 기념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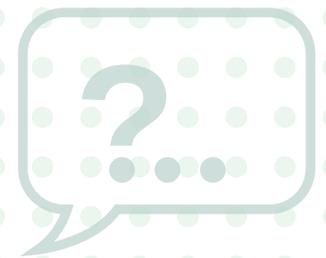
##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응



2016년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  
〔1주년〕 기념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응

\* 책임연구자\_전윤경 \* 연구자\_강수정 \* 감사자\_유금란





2016년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  
 『1주년』 기념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영등포구학교폭력의 현황과대응

.....

\*책임연구자\_전윤경 \*연구자\_강수정 \*감수자\_유금란





#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응」

### 축 사

먼저 영등포구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영등포구 학교폭력 현황과 대응』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연구를 위해 애써 주신 센터 직원 분들을 비롯해 협조해주신 학교 및 유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구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2015년 9월 1일 구 단위의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상담을 비롯한 교육, 캠페인,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의 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학교폭력 현황 및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종합적인 현황과 대응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된 이번 보고서가 영등포구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또한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전문 기관이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심 기관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영등포구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곁에서 영등포구는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응」**  
**발 간 사**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세워졌고, 또 이를 위해 영등포구와 함께 지난 1년간 개인상담, 집단상담,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영등포구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개인상담, 교육, 집단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해준 강수정 선생님과 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과 감수를 통해 연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가톨릭대학교 유금란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진행을 도와주신 교사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잘 새기고 연구하며, 더 적합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돕겠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지역사회 내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환기하고 청소년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일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장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전 윤 경



## 【 결과 요약 】

### 가. 학교폭력 인식

-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초등학교가 다른 교급보다 학급 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있다고 더 많이 응답함
  -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을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함
  -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그냥 장난으로'
- ⇒ 학교폭력 인식 및 예방 교육을 학교급별로 다르게, 특히 초등학생을 위주로

#### 1) 학교폭력의 심각성

- '심각함(9.5%)' < '심각하지 않음(59.1%)'

- 초중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

#### 2) 최근 1년 간 학급 내 피해 학생의 존재

- 최소 1명 이상 '있다(20.8%)', 피해 학생 수는 학급 내 '1~2명(15.6%)'이 가장 많음

-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피해 학생의 존재를 더 많이 보고함

#### 3) 최근 1년 간 학급 내 가해 학생의 존재

- 최소 1명 이상 '있다(22.1%)', 가해 학생 수는 학급 내 '1~2명(13.3%)'이 가장 많음

-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가해 학생의 존재를 더 많이 보고함

#### 4)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 언어폭력(61.9%) > 집단따돌림(59.2%) > 신체폭행(52.4%) > 성폭력(43.8%) 등

- 경험에 비추어 응답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보고한 경험 유형과 비교할 필요 있음

#### 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다중응답)

- 그냥 장난으로(46.8%) > 피해 학생이 약해보여서(40.4%) > 아무 이유 없음(36.8%) >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32.2%) >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30.8%) 등

### 나. 학교폭력 목격

- 100명중 19.3명꼴로 학교폭력을 최소 1회 목격,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우세
  - 학교폭력 목격 후 가장 많이 든 느낌은 '답답하다', '별 느낌이나 생각이 없다', '무섭다'
  - 학교폭력 목격 후 '말리거나 도와줬다'가 가장 많지만, '모른 척 했다'도 30% 이상
- ⇒ 학교폭력 목격자,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 ⇒ 목격 후 느낀 정서나 대응 방식에 대한 심리 교육이 필요함

#### 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

- 최소 1회 이상 '있다(19.3%)', 그 중 '1회 있다(10.2%)'가 가장 많음

-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목격경험을 보고함

2) 학교폭력 목격 후 든 느낌이나 생각

○ 답답하다(25.2%) > 별 느낌이나 생각이 없다(23.5%) > 무섭다(21.3%) > 화가 난다(20.9%) > 우울하다(7.3%) > 재미있다(1.7%)

○ 초등학교는 ‘무섭다(27.4%)’, 고등학교는 ‘별 느낌이나 생각이 안 든다(32.0%)’가 우세한 경향

3) 최근 1년 간 가장 많이 목격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 언어폭력(62.4%) > 집단따돌림(42.2%) > 신체폭행(24.3%) > 사이버폭력(18.2%) > 위협과 협박(16.6%) 등

○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한 학교폭력유형 중 상위 3개 유형이 동일한 반면, 심각성에서 다소 낮은 순위였던 사이버폭력 및 위협과 협박이 목격 유형에서는 각각 4·5위를 차지함

4)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취한 행동 (다중응답)

○ 모른 척 했다(39.1%) > 선생님께 알렸다(28.7%) >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었다(24.7%) > 함께 말렸다(19.9%) 등, 이 중 ‘알리거나 도와주었다’는 응답률을 모두 합치면 가장 높은 비율

○ ‘상담센터에 상담하였다(3.2%)’는 ‘같이 피뎠다(2.9%)’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순위였음

다. 학교폭력 피해

- 100명중 6명꼴로 최소 1회 학교폭력 피해 경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순으로 우세
- 주로 ‘같은 반 학생’에게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함
- 피해 경험 후 등교거부충동, 자살사고, 복수충동 등을 느끼기도 함
- 피해 경험 후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거나의 비율은 ‘50:50’
- ‘초등학교’,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이자 피해 경험이 최초 발생하는 시기
  - ⇒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
  - ⇒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의 홍보가 필요

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 최소 1회 이상 ‘있다(6%)’, 그 중 ‘1회 있다(3.3%)’가 가장 많음

○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피해경험을 보고함

2)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

○ 같은 반 학생(54.9%) > 다른 반 학생(29.4%) 등

○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이 우세한 반면, 중학교는 ‘다른 반 학생’이 우세함

3)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의 수

○ 2~5명(55.9%) > 1명(34.2%) > 6명 이상(9.9%)

4)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최초 시기

○ 초등 4~6학년(43.8%) > 초등 1~3학년(24.3%) > 중등 1~3학년(20.1%) 등

○ 초등학교는 ‘초등 4~6학년’이 우세한 반면, 중고등학교는 ‘중등 1~3학년’이 우세함

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등교거부충동

○ 최소 1회라도 등교거부충동을 ‘느꼈다(61.9%)’

○ 1년에 1~2번(20.6%) > 1달에 1~2번(15.0%) = 1주에 1~2번(15.0%) > 거의 매일(11.3%)

- 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자살사고
- 최소 1회라도 자살사고를 ‘경험했다(29.3%)’
  - 1년에 1~2번(14.0%) > 1주에 1~2번(6.4%) > 거의 매일(5.1%) > 1달에 1~2번(3.8%)
- 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복수충동
- 최소 1회라도 복수충동을 ‘느꼈다(67.4%)’
  - 1년에 1~2번(29.2%) > 거의 매일(17.5%) > 1달에 1~2번(11.0%) > 1주에 1~2번(9.7%)
  -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복수충동을 더 많이 느낌
- 8) 최근 1년 간 주로 겪은 학교폭력 피해유형 (다중응답)
- 언어폭력(68.1%) > 집단따돌림(32.9%) > 위협과 협박(19.1%) > 사이버폭력(16.1%) > 신체폭행(11.8%) 등
  - 학교폭력 목격경험의 상위 5개 유형과 목록이 동일하며 그 순위도 유사함
- 9)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장소 (다중응답)
- 교실(56.5%) > 복도(27.3%) > 인터넷/핸드폰(21.7%) > 운동장(12.5%) 등
- 10)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시간대 (다중응답)
- 쉬는 시간(61.1%) > 방과 후(25.5%) > 점심시간(21.9%) > 수업시간(19.8%) > 하교시간(16.9%) > 등교시간(6.0%)
- 1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요청 관련
- 요청한다(50.0%) vs. 요청하지 않는다(50.0%)
  - 초등학교는 ‘도움을 요청한다’, 고등학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가 각각 우세함
  - 도움 요청 대상 (다중응답)
    - 부모님/가족(67.2%) > 친구(55.7%) > 교사(45.7%) 등
    - ‘청소년 상담기관(8.1%)’이나 ‘위클래스(6.9%)’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0% 미만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 혼날 것 같아서(36.4%) > 별일 아니라서(34.8%) > 일이 커질 것 같아서(32.0%)

라. 사이버폭력 피해

- 100명중 6.1명꼴로 최소 1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욕과 상처 주는 말’이 가장 우세
  - ‘같은 반 학생’에게 ‘SNS’로 받는 피해가 가장 빈번
  - 초등학생은 ‘채팅방(인터넷, 게임)’에서, 중고등학생은 ‘SNS’에서 가장 많이 겪음
- ⇒ 언어폭력의 사이버화, 특히 SNS와 게임 이용 교육의 필요성 증대

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있다(6.1%) < 없다(93.9%)

2) 사이버폭력 피해공간

-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63.4%) > 인터넷, 게임과 같은 채팅방(22.3%) 등
- 초등학교는 ‘채팅방(인터넷, 게임)’, 중고등학교는 ‘SNS(카톡, 페이스북 등)’ 공간이 우세함

3)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 욕, 상처 주는 말(78.9%) > 따돌림(10.5%) > 협박(7.0%) > 불러내서 괴롭힘(2.6%) > 성(性)적인 말이나 요구(0.9%)
-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상위 3개 유형과 동일한 순위로 보고함

4) 사이버폭력 피해제공 대상

- 같은 반 학생(36.0%) > 다른 반 학생(34.2%) > 모르는 사람(18.9%) 등
- 중학교는 ‘다른 반 학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르는 사람’이 우세함

5)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빈도

- 1회(66.4%) > 3~10회(25.9%) > 10회 이상(7.8%)

6) 사이버폭력 피해기간

- 1회(56.0%) > 1달 정도(19.0%) > 1년 이내(12.1%) > 3개월 이내(6.9%) > 1년 이상(6.1%)

마. 학교폭력 가해

- 100명중 3.7명꼴로 최소 1회 학교폭력 가해 경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순으로 우세
- 주로 ‘같은 반 학생’에게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함
- 가해의 이유는 주로 ‘오해와 갈등’, ‘피해 학생의 잘못’, ‘그냥 장난’, ‘화풀이’
- 가해 후 주로 ‘미안함’, ‘후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음’
- ‘초등학교’, 가장 많은 가해를 행사하는 시기이자 가해 경험이 최초 발생하는 시기
  - ⇒ 따뜻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 분노 조절과 공감, 대인관계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

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 최소 1회 이상 ‘있다(3.7%)’, 그 중 ‘1회 있다(2.4%)’가 가장 많음
-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더 많은 가해경험을 보고함

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상

- 같은 반 학생(61.0%) > 다른 반 학생(20.8%) 등

3)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최초 시기

- 초등 4~6학년(55.4%) > 중등 1~3학년(23.0%) > 초등 1~3학년(14.9%) 등
-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보다 ‘초등 4~6학년’을,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중등 1~3학년’을 더 우세하게 보고함
-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최초 시기와 유사함

4) 최근 1년 간 주로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 유형 (다중응답)

- 언어폭력(50.2%) > 집단따돌림(36.0%) > 신체폭행(30.1%) > 위협과 협박(9.1%) > 사이버폭력(8.6%) 등
- 학교폭력 목격경험, 피해경험의 상위 5개 유형과 목록이 동일하며 그 순위도 유사함

- 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장소 (다중응답)
- 교실(52.8%) > 복도(16.5%) > 놀이터/공터(11.7%) > 운동장(11.5%) 등
  -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응답과 유사함(인터넷/핸드폰 제외)
- 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시간대 (다중응답)
- 쉬는 시간(60.5%) > 점심시간(20.4%) > 하교시간(17.2%) > 방과 후(16.6%) > 수업시간(13.6%) > 등교시간(6.0%)
- 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다중응답)
-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30.3%) >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29.1%) > 그냥 장난으로(22.9%) >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12.1%) 등
- 8)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한 후 생긴 일 (다중응답)
-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46.3%)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33.4%) > 우리 가족에게 혼났다(23.7%) > 선생님께 혼났다(22.3%) 등
  - ‘상담 기관에서 상담(8.0%)’,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벌 및 징계(6.6%)’, ‘경찰서의 조사와 처벌(0.0%)’은 타 항목에 비해 낮은 응답률 보임
- 9)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그만 둔 원인 (다중응답)
- 스스로 뉘우침(63.9%) > 부모나 교사의 충고 및 꾸중(17.1%) > 개인상담/집단상담(14.9%) 등
  - 학교폭력 후 생긴 일 중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행동(8.0%)’은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학교폭력을 그만 둔 원인으로 ‘개인상담/집단상담’이 높은 응답률을 보고함
- 10) 학교폭력 행동 후 든 느낌과 생각 (다중응답)
-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47.1%) > 죄책감과 후회(27.1%) > 별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다(20.9%) > 뒷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18.9%) > 분이 풀리지 않아 화가 났다(18.8%) > 쾌감과 재미를 느꼈다(5.2%)

바. 사이버폭력 가해

- 100명중 2.1명꼴로 최소 1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욕과 상처 주는 말’이 가장 우세
- ‘같은 반 학생’에게 ‘SNS’로 받는 피해가 가장 빈번
- 초등학생은 ‘1회’, 중고등학생은 ‘여러 차례’ 가해경험과 기간을 보고
  - ⇒ 언어폭력의 사이버화, 특히 SNS와 게임 이용 교육의 필요성 증대
  - ⇒ 사이버폭력, 플랫폼과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

- 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 있다(2.1%) < 없다(97.9%)
- 2) 사이버폭력 가해공간
-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52.5%) > 인터넷, 게임과 같은 채팅방(37.5%)
  - ‘블로그, 개인홈페이지(0.0%)’, ‘이메일(0.0%)’, ‘문자/전화(0.0%)’에 응답한 학생은 없었음

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 욕, 상처 주는 말(76.1%) > 따돌림(10.9%) > 협박(6.5%) > 성(性)적인 말이나 요구(4.3%) > 불러내서 괴롭힘(2.2%)
-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상위 유형과 유사함

4)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같은 반 학생(33.3%) > 다른 반 학생(28.6%) > 모르는 사람(21.4%) 등

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

- 1회(73.9%) > 3~10회(21.7%) > 10회 이상(4.3%)
- 초등학교는 1회성 경험이 많은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러 차례의 가해경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6) 사이버폭력 가해기간

- 1회(62.2%) > 1달 정도(24.4%) > 3개월 이내(6.7%) = 1년 이내(6.7%) > 1년 이상(0.0%)
- 초등학교는 1회성 경험이 많은 반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인 가해기간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사. 추가 분석 I: 다문화여부와 학교폭력 경험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목격경험: 다문화(23.0%) &gt; 일반(19.1%) [3.9%p ▲]</li> <li>- 학교폭력 피해경험: 다문화(9.0%) &gt; 일반(5.9%) [3.1%p ▲]</li> <li>-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다문화(7.2%) &gt; 일반(6.0%) [1.2%p ▲]</li> <li>- 학교폭력 가해경험: 다문화(4.2%) &gt; 일반(3.7%) [0.5%p ▲]</li> <li>-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다문화(1.0%) &lt; 일반(2.1%) [1.1%p ▼]</li> </ul> <p>⇒ 다문화아동청소년, 학교폭력에 취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p> <p>⇒ 다문화아동청소년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 시사</p> <p>※다문화아동청소년의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p>
---

아. 추가 분석 II: 학교폭력 방관 정도와 집단 간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더 방관적인 태도</li> <li>-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체적으로 더 방관적인 태도</li> <li>-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방어', '무관심'한 정도가 높아짐</li> <li>-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폭력을 '쌍방과오'라고 더 많이 생각함</li> </ul> <p>⇒ 여학생일수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방관하는 경향 존재</p> <p>⇒ 방관자 관련 개입 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 시사</p>
---

## 목 차



축 사 .....	i
발간사 .....	iii
결과요약 .....	v
I. 서론 .....	1
1. 조사의 필요성.....	1
2. 조사의 목적과 목표.....	2
II. 이론적 배경 .....	3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	3
2. 학교폭력의 현황.....	4
III. 연구방법 .....	6
1. 조사 대상 및 절차.....	6
2. 조사도구.....	6
3. 분석방법.....	7
IV. 연구결과.....	8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
2. 학교폭력 실태분석 .....	10
가. 학교폭력 인식.....	10
나. 학교폭력 목격.....	15
다. 학교폭력 피해.....	19
라. 사이버폭력 피해.....	31
마. 학교폭력 가해.....	36
바. 사이버폭력 가해.....	46
사. 추가 분석 I : 다문화여부와 학교폭력 경험의 관련성 .....	51
아. 추가 분석 II : 학교폭력 방관 정도와 집단 간의 관련성.....	53
V. 논 의 .....	55
1. 요약 .....	55
2. 제 언.....	55
3. 의 의.....	59
[부 록]	
* 참고문헌.....	63
* 설문지 .....	65



## 표 목 차



<표-1> 학교폭력의 유형 .....	3
<표-2> 세부 조사 내용 .....	6
<표-3>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중치 적용) .....	8
<표-4> 학교폭력의 심각성.....	10
<표-5> 최근 1년 간 학급 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무 .....	11
<표-6> 학급 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 .....	11
<표-7> 최근 1년 간 학급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유무 .....	12
<표-8> 학급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	12
<표-9>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	13
<표-10>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다중응답) .....	14
<표-1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 유무 .....	15
<표-1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 빈도 .....	15
<표-13>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든 느낌/생각 .....	16
<표-14> 최근 1년 간 가장 많이 목격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	17
<표-1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취한 행동 (다중응답) .....	18
<표-1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 .....	19
<표-1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빈도 .....	19
<표-18>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 .....	20
<표-19>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의 수 .....	21
<표-20>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등교거부충동 빈도 .....	22
<표-2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자살사고 빈도 .....	23
<표-2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복수충동 빈도 .....	24
<표-23>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최초 시기 .....	25
<표-24> 최근 1년 간 주로 겪은 학교폭력 피해유형 (다중응답) .....	26
<표-2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장소 (다중응답) .....	27
<표-2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시간대 (다중응답) .....	28
<표-2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요청 여부 .....	29
<표-28> 도움 요청 대상 (다중응답) .....	29
<표-29>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	30
<표-30>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유무 .....	31

<표-31> 사이버폭력 피해공간 .....	31
<표-32>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	32
<표-33> 사이버폭력 피해제공 대상 .....	33
<표-34>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빈도 .....	34
<표-35> 사이버폭력 피해기간 .....	35
<표-3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무 .....	36
<표-3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빈도 .....	36
<표-38>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상 .....	37
<표-39>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최초 시기 .....	38
<표-40> 최근 1년 간 주로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유형 (다중응답) .....	39
<표-4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행동을 주로 행사한 장소 (다중응답) .....	40
<표-4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시간대 (다중응답) .....	41
<표-43>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다중응답) .....	42
<표-44>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한 후 생긴 일 (다중응답) .....	43
<표-4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그만 둔 원인 (다중응답) .....	44
<표-46> 학교폭력 행동 후 든 느낌과 생각 (다중응답) .....	45
<표-47>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유무 .....	46
<표-48> 사이버폭력 가해공간 .....	46
<표-49>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	47
<표-50>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48
<표-5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 .....	49
<표-52> 사이버폭력 가해기간 .....	50
<표-53> 다문화 여부와 학교폭력 목격경험 여부 .....	51
<표-54> 다문화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 .....	51
<표-55> 다문화 여부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여부 .....	52
<표-56> 다문화 여부와 학교폭력 가해경험 여부 .....	52
<표-57> 다문화 여부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여부 .....	52
<표-58> 성별과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관련성 .....	53
<표-59> 학교급과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관련성 .....	54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 I. 서론

### 1. 조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현 정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 중 하나로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미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나, 2011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학교폭력을 피해·가해 학생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처 방안’ 등과 같은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 1차까지 시행된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 응답률은 12.3%(2012)에서 0.9%(2016)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7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3만9천명(0.9%)로 집계되었고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 건수가 줄어들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눈에 보이게’ 감소한 부분도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아’ 학교폭력이라고 보고하기 애매한 유형,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시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또 다른 가해 학생이 되는 학교폭력의 중복 경험 현상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이 복잡화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전해숙, 전종설, 정하은, 이주연, 2015).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학교폭력의 경험 여부와 학교폭력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추이와 경향을 파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폭력피해의 경험 정도(횟수)나 학교급별 발생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이승하, 성기선, 안상희, 2012) 복잡해지는 학교폭력의 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다.

학교폭력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현상 자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동시에 개인과 가정, 학교 등의 차원에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실제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지역 내 개인 또는 기관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두 차원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지역 사회적 개입, 예컨대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실제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communitiy)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본 영등포구학교폭력실태조사는 바로 이 지역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근간으로 한다.

2015년 2차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전국의 응답률을 영등포구의 응답률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피해 응답률이 0.9%인데 반해 영등포구 피해 응답률은 1.6%로 0.7%p의 차이가 난다. 학교급별로 따졌을 때에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학교급은 초등학교로, 전국의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1.4%인 반면 영등포구의 초등학교는 2.5%의 응답률을 보였고, 중고등학교 모두 0.7%p와 0.3%p 더 높았다. (중등 0.7% vs. 1.4% / 고등 0.5% vs. 0.8%).

또한 행정자치부(2015)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정 거주 인원(10,861명)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더불어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학령기 자녀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관내 한 초등학교의 40.2%가 다문화

가정(전호성, 2015)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청소년에 대한 지역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미숙한 한국어 사용, 피부색의 차이, 또래 집단의 편견이나 인식 차이로 학교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오세연, 김학범, 2013). 실제로 다문화가정청소년 대상 차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친구들에게 받은 차별경험이 다른 차별대상에 비해 가장 높았다(김석준, 2015). 또한 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16.2%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동일 조사의 전체 피해 경험이 12%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다문화가정청소년(이하 일반가정청소년)보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이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국가인권위원회,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현황과 지역사회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는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자 영등포구청에서 2015년 9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설 센터로 설치한 기관이다. 본 센터는 청소년, 가정,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련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내 유관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센터가 학교폭력 기초 실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조사의 목적과 목표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는 2016년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목격 경험 등을 조사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적·시대적 특성이 담긴 실태 조사 결과가 학교폭력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개입 방식의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 1. 영등포구 청소년의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목격 등을 포함한 2016년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목표 2. 주요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성을 지역사회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파악한다.

목표 3. 주요 조사 결과 및 논의점을 토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할 방안을 마련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된 것은 1978년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Olweus 교수가 그의 저서 <학교에서의 공격성: 가해자와 피해자(Bullies and Whipping Boys)>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나서부터였다(이규미 외, 2014). Olweus(1991)는 한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이나 여러 명의 학생에 의한 부정적인 행위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를 학생 간의 괴롭힘(bullying), 즉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했다. 그가 언급한 부정적 행위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해치려고 시도할 때, 상해를 입히거나 불편하게 할 때를 뜻한다. 또한 이 부정적 행동은 언어, 신체적 접촉, 표정이나 불쾌한 몸짓으로 전달될 수 있다(Olweus, 1991).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948호, 2013.7.30. 일부개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관습적이지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정의된 학교폭력의 공식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동 유형을 아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과 그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표-1〉 학교폭력의 유형

<b>신체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li> <li>•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li> <li>•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li> </ul>
<b>언어폭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모욕)</li> <li>※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li> <li>•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li> </ul>
<b>금품갈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li> <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li> <li>• 돈을 건어오라고 하는 행위</li> </ul>
<b>강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li> </ul>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 2. 학교폭력의 현황

학교폭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로, 그 형태와 수준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추이를 보면, 학교폭력은 수치상으로는 분명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또래 간의 싸움이 과격해져서 생겨난 문제 또는 일시적인 갈등으로 여기기에는 폭력 양상이 지나치게 흉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습적인 구타, 성추행, 극도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잔인한 사례가 늘고 있다(이규미 외, 2014). 덧붙여, 학교폭력의 심각화는 가해 행위의 둔감성과 맞물려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그냥 장난으로’,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 등의 이유로 행사했다고 응답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이러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해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발생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흔히 중학생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그 연령대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2016년 7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0.5%, 0.3%의 피해 응답률을 보인 반면,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2.1%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첫 피해 경험 시기로 ‘초등학교 5학년(1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초등학교의 피해 경험은 전체의 79.6%로 2013년 청예단 조사 결과의 75.1%보다 더 높아져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은 여전히 학교 교실과 쉬는 시간이다. 접촉 기회, 집단 역동, 학교 문화 등에

의해 학교폭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폭력이 심화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원(예: 또래, 교사, 건강한 학교 문화 등)을 갖춘 장소이기도 하다. 즉 교내 폭력은 비교적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너머는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쉽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가시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하였으나 비가시적인 학교폭력이 새로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이버폭력’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 말한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의 통제권 밖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더 가중시키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전통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두 배에 달한다고 확인되기도 했다(Englander, 2013; 오인수, 2014에서 재인용).

넷째, 학교폭력 참여자들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경험을 중복으로 가진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많은 사람이 한 때는 피해자였다(도기봉, 오주, 2010; 신혜섭, 2005; 오주, 아영아, 2006). 이러한 가해자-피해자 중복 집단은 두 가지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지니는데(Nansel et al., 2001; Olweus, 1993),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 집단이 보고되기도 했다(Stein, Dukes, & Warren, 2007). 따라서 학교폭력을 피·가해자의 문제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이나 가해학생들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만을 적용한다면,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뿐 아니라, 학교폭력의 주변인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주변인(bystander)이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학교폭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서(Cho & Chung, 2012) 주변인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자주 쓰이는 유형은 주로 3가지 유형으로, 학교폭력에 무관심하거나 크게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폭력 행동을 부추기는 ‘동조자’, 피해자를 옹호하는 ‘방어자’로 구분한다(남미애, 홍봉선, 2015). 주변인은 집단 역동에 따라 학교폭력의 시작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은 대개 ‘힘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데, ‘다수’인 주변인이 불균형을 방치하거나 반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인은 시간에 따라 그 하위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학교폭력 예방과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절차

영등포구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7일부터 2016년 6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의 수는 학년별 300명씩 총 2,100명을 설정하였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스쿨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에서 공시한 정보를 활용하였고, 관내 행정동별 학생 수와 학교 수를 검토한 후 모집단의 학교급 비율에 맞춰 표본의 수를 임의로 할당하였다. 할당된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 중 일부 학교들을 대표 군집으로 편의 설정하였다. 표집 과정에서 설문에 동의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7개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집된 학교는 총 17개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2,150부를 배포하여 총 1,924부가 회수되었다. 자료 검증 작업을 거쳐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118부를 제외한 총 1,8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 2. 조사도구

설문도구의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 수는 총 70문항으로 문항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정보(8문항), 학교폭력 인식 정도(5문항), 방관자 척도(19문항), 학교폭력 목격(4문항), 학교폭력 피해(12문항), 사이버폭력 피해(6문항), 학교폭력 가해(10문항), 사이버폭력 가해(6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문항 내용은 표-2와 같다. 학교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교육부(2015),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4), 미래창조과학부(2014), 전영실, 신동준, 박상희, 김일수(2012)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설문 목적에 맞춰 수정 후 제작하였다. 방관자 척도는 김현주(2003)가 방관자를 변별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리커트식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방관 행동이나 방관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변인은 자기방어(8문항), 무관심(6문항), 쌍방과오(5문항)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신뢰도는 .936, .893, .841, 전체 신뢰도는 .927였다.

〈표-2〉 세부 조사 내용

구 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	성별, 학년, 동거 가족, 가족 국적(부/모), 학교성적, 학교 만족도, 가정 만족도	8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 심각성,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발생 이유	5
방관자 척도	자기방어, 무관심, 쌍방과오	19
학교폭력 목격	학교폭력 목격경험, 목격 후 느낌/생각, 목격유형, 목격 후 행동	4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경험, 피해제공자, 피해제공 학생 수, 피해 후 등교거부충동, 피해 후 자살사고충동, 피해 후 복수충동, 피해경험 최초 시기, 피해 유형, 피해 장소, 피해시간대, 도움 요청 여부, 요청 대상 또는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2
사이버폭력 피해	사이버피해경험, 사이버피해장소, 사이버피해유형, 사이버피해제공자, 사이버피해빈도, 사이버피해기간	6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가해경험, 가해대상, 가해경험 최초 시기, 가해유형, 가해장소, 가해시간대, 가해 이유, 가해 후 상황, 가해 끝낸 원인, 가해 후 느낌/생각	10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버가해경험, 사이버가해장소, 사이버가해유형, 사이버가해대상, 사이버가해빈도, 사이버가해기간	6

### 3. 분석방법

본 조사의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설문 실시 과정에서 생겨 난 표집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학교급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 보정에 따라 생기는 소수점 반올림 등으로 인해 총 응답수가 항목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다. 교차분석 시 교급에 따른 변인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고자  $\chi^2$  검정을 사용하였고, 검정 후 어떤 항목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교정법을 사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의 사후검증은 Scheffe 검정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3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는 총 1,806명으로 남학생은 927명(51.6%), 여학생은 871명(48.4%)였다. 동거가족구성은 ‘양(兩)부모’ 1,297명(71.8%), ‘한부모’ 90명(5.0%), ‘조부/조모’ 24명(1.4%), ‘조부/조모+양부모’ 295명(16.3%), ‘조부/조모+한부모’ 72명(4.0%), ‘형제자매만’ 1명(0.04%), ‘친척만’ 4명(0.2%), ‘기타(동거가족 없음/무응답 등)’ 24명(1.4%)이었다. 다문화 가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 101명(5.6%), 비다문화가정이 1,705명(94.4%)였다. 부모의 출신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이 각각 53명(2.9%), 7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87명(27.0%), 중학교 771명(42.7%), 고등학교 548명(30.3%)이었다. 학교성적은 90점대 이상 431명(24.2%), 80점대 이상 459명(25.7%), 70점대 이상 320명(17.9%), 60점대 이상 261명(14.6%), 50점대 이하 313명(17.6%)로 80~90점대의 상위권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학교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713명(39.8%), ‘매우 만족’ 601명(33.5%)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70% 이상이었다. 가정만족도 또한 ‘대체로 만족’ 622명(34.9%), ‘매우 만족’ 864명(48.5%)으로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표-3〉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중치 적용)

구 분	세부 항목	N	(%)
성별 (무응답: 8명)	남	927	51.6%
	여	871	48.4%
동거가족구성	양부모	1297	71.8%
	한부모	90	5.0%
	조부 또는 조모(이하 조부/조모)	24	1.4%
	조부/조모+부모	295	16.3%
	조부/조모+한부모	72	4.0%
	형제자매만	1	0.0%
	친척만	4	0.2%
기타 (동거가족 없음 / 무응답 등)	24	1.4%	
형제자매 유무	있다	1392	77.1%
	없다	414	22.9%
다문화가정 여부	다문화가정이다	101	5.6%
	다문화가정이 아니다	1705	94.4%
부 국가 (무응답: 8명)	한국	1733	96.4%
	중국	53	2.9%
	일본	2	0.1%
	기타	4	0.2%
	모른다	5	0.3%
모 국가 (무응답: 3명)	한국	1713	95.0%
	중국	72	4.0%
	일본	3	0.2%
	몽골	2	0.1%
	기타	2	0.1%
	모른다	11	0.6%

<b>학교급/학년</b> (무응답: 8명)	초등	487	27.0%	초등학교 5학년	262	14.6%
				초등학교 6학년	218	12.1%
	중등	771	42.7%	중학교 1학년	190	10.6%
				중학교 2학년	346	19.2%
				중학교 3학년	234	13.0%
	고등	548	30.3%	고등학교 1학년	290	16.1%
고등학교 2학년				257	14.3%	
<b>학교성적</b> (무응답: 22명)	90점대 이상				431	24.2%
	80점대 이상				459	25.7%
	70점대 이상				320	17.9%
	60점대 이상				261	14.6%
	50점대 이하				313	17.6%
<b>학교만족도</b> (무응답: 12명)	매우 불만				22	1.2%
	대체로 불만				74	4.1%
	보통				383	21.3%
	대체로 만족				713	39.8%
	매우 만족				601	33.5%
<b>가정만족도</b> (무응답: 24명)	매우 불만				12	0.7%
	대체로 불만				46	2.6%
	보통				238	13.3%
	대체로 만족				622	34.9%
	매우 만족				864	48.5%

## 2. 학교폭력 실태분석

### 가. 학교폭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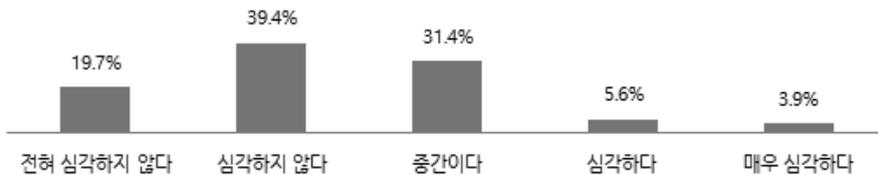
#### 1)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39.4%)’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19.7%)’는 부정적 응답(59.1%)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는 ‘심각하다(5.6%)’와 ‘매우 심각하다(3.9%)’ 등의 긍정적 응답(9.5%)과 비교했을 때 약 6배 많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심각하지 않다(39.4%)’, ‘중간이다(31.4%)’, ‘전혀 심각하지 않다(19.7%)’의 순으로 학생들은 교내 학교폭력이 크게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학교급별 응답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이 다른 교급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표-4〉 학교폭력의 심각성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중간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통계량
초등	빈도	87	172	164	32	31	25,606***
	(%)	17.9%	35.4%	33.7%	6.6%	6.4%	
중등	빈도	159	308	226	48	31	
	(%)	20.6%	39.9%	29.3%	6.2%	4.0%	
고등	빈도	109	232	177	21	9	
	(%)	19.9%	42.3%	32.3%	3.8%	1.6%	
전체	빈도	355	712	567	101	71	1,806
	(%)	19.7%	39.4%	31.4%	5.6%	3.9%	100%

\*\*\* $p < .001$ ,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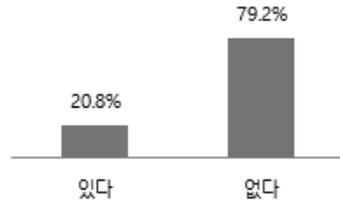
2) 최근 1년 간 학급 내 피해 학생의 존재

학급 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79.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반에서 피해학생이 ‘최소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8%였다. 그 중에서 ‘1~2명(15.6%)’이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응답률은 적었다. 학교급별 응답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피해학생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표-5> 최근 1년 간 학급 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무

구분		있다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181	302	111.078***
	(%)	37.5%	62.5%	
중등	빈도	117	653	
	(%)	15.2%	84.8%	
고등	빈도	77	470	
	(%)	14.1%	85.9%	
전체	빈도	375	1425	1,800
	(%)	20.8%	7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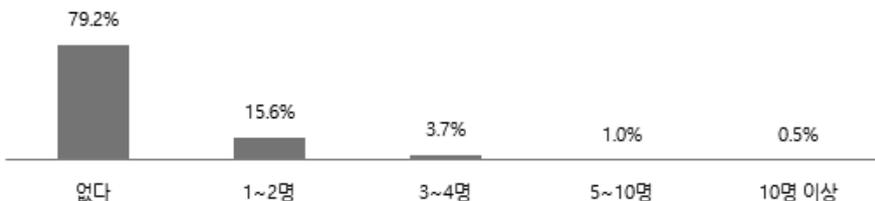
\*\*\* $p<.001$ , \*\* $p<.01$ , \* $p<.05$  n=1,800



<표-6> 학급 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

구분		없다	1~2명	3~4명	5~10명	10명 이상	통계량
초등	빈도	302	134	37	6	4	122.330***
	(%)	62.5%	27.7%	7.7%	1.2%	0.8%	
중등	빈도	653	83	22	10	1	
	(%)	84.9%	10.8%	2.9%	1.3%	0.1%	
고등	빈도	470	63	8	2	4	
	(%)	85.9%	11.5%	1.5%	0.4%	0.7%	
전체	빈도	1425	280	67	18	9	1,799
	(%)	79.2%	15.6%	3.7%	1.0%	0.5%	100%

\*\*\* $p<.001$ , \*\* $p<.01$ , \* $p<.05$  n=1,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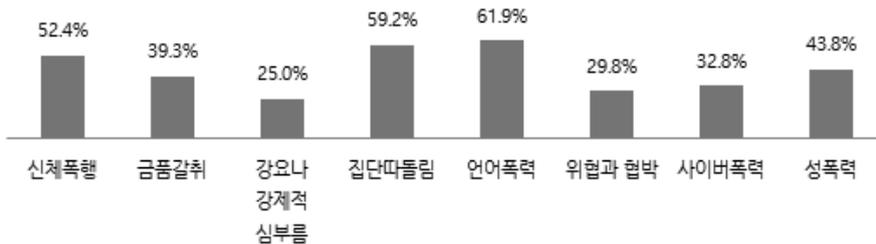
4)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61.9%), 집단따돌림(59.2%), 신체폭행(52.4%) 순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유형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9>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구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위협과 협박	사이버 폭력	성폭력
초등	빈도	243	193	125	257	337	166	173	202
	(%)	51.6%	41.1%	26.6%	54.6%	71.6%	35.3%	36.7%	42.9%
중등	빈도	384	279	174	460	446	201	252	327
	(%)	51.7%	37.5%	23.3%	61.8%	60.0%	27.0%	33.8%	44.0%
고등	빈도	287	213	137	316	296	153	148	234
	(%)	54.2%	40.3%	25.8%	59.7%	55.9%	28.9%	27.9%	44.3%
전체	빈도	914	685	435	1033	1079	520	572	763
	(%)	52.4%	39.3%	25.0%	59.2%	61.9%	29.8%	32.8%	43.8%

n=6,001



5)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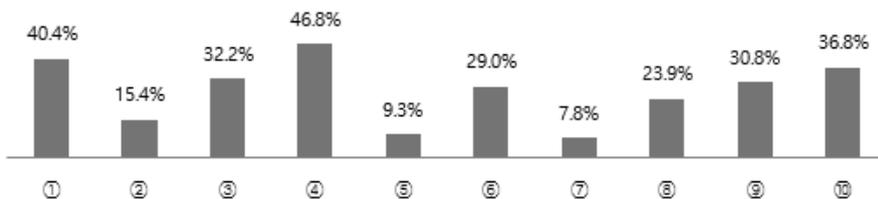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이유는 ‘그냥 장난으로(46.8%)’라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이 약해보여서(40.4%)’, ‘아무 이유 없음(36.8%)’,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32.2%)’,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다중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초등	빈도	228	78	158	233	54	175	51	80	190	137
	(%)	47.5%	16.2%	32.9%	48.6%	11.3%	36.5%	10.6%	16.7%	39.6%	28.6%
중등	빈도	263	114	259	346	83	216	64	193	217	286
	(%)	34.6%	15.0%	34.1%	45.5%	10.9%	28.4%	8.5%	25.4%	28.5%	37.7%
고등	빈도	229	83	158	255	29	126	23	153	142	233
	(%)	42.1%	15.3%	29.0%	47.0%	5.2%	23.2%	4.3%	28.2%	26.1%	42.8%
전체	빈도	720	275	574	834	166	517	138	426	549	656
	(%)	40.4%	15.4%	32.2%	46.8%	9.3%	29.0%	7.8%	23.9%	30.8%	36.8%

n=4,834

- ① 피해 학생이 약해보여서
- ②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
- ③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 ④ 그냥 장난으로
- ⑤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 ⑥ 피해 학생의 외모나 모습이 남들과 달라서
- ⑦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보복하려고
- ⑧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 ⑨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
- ⑩ 아무 이유 없음



나. 학교폭력 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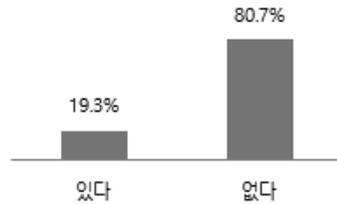
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은 '전혀 없다(8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3%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최소 1회 이상 학교폭력을 목격했으므로 나타났다. 목격경험의 횟수로는 '1회 있다(10.2%)'가 가장 많았다. 빈도수가 커질수록 응답률은 적었다. 학교급별 비교에서 학교폭력 목격경험의 유무와 빈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p < .001$ ).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더 많은 목격 경험 및 빈도를 보고했다.

<표-1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 유무

구분		있다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136	343	35.036***
	(%)	28.4%	71.6%	
중등	빈도	120	641	
	(%)	15.8%	84.2%	
고등	빈도	88	457	
	(%)	16.1%	83.9%	
전체	빈도	344	1441	1,785
	(%)	19.3%	8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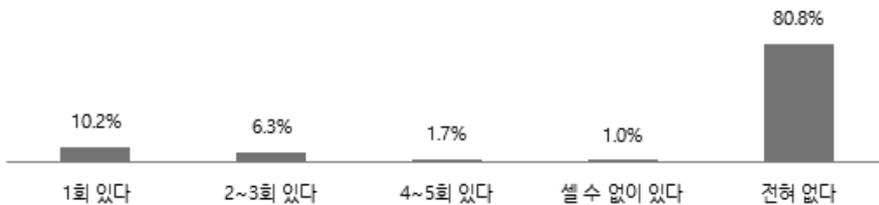
\*\*\* $p < .001$ , \*\* $p < .01$ , \* $p < .05$  n=1,785



<표-1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목격경험 빈도

구분		1회 있다	2~3회 있다	4~5회 있다	셀 수 없이 있다	전혀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67	46	17	4	343	42.889***
	(%)	14.0%	9.6%	3.6%	0.8%	71.9%	
중등	빈도	66	37	10	7	640	
	(%)	8.7%	4.9%	1.3%	0.9%	84.2%	
고등	빈도	48	30	3	7	457	
	(%)	8.8%	5.5%	0.6%	1.3%	83.9%	
전체	빈도	181	113	30	18	1440	1,782
	(%)	10.2%	6.3%	1.7%	1.0%	80.8%	100%

\*\*\* $p < .001$ , \*\* $p < .01$ , \* $p < .05$  n=1,782



2) 학교폭력 목격 후 든 느낌이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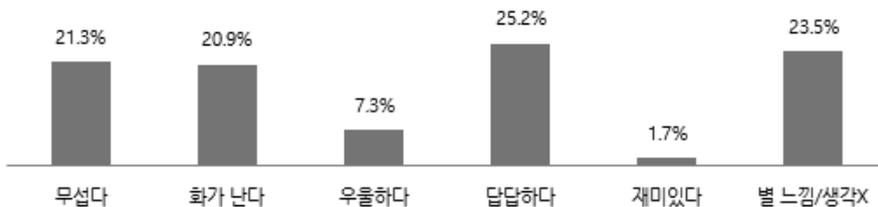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가장 많이 든 느낌이나 생각은 ‘답답하다(25.2%)’, ‘별 느낌이나 생각이 없다(23.5%)’, ‘무섭다(21.3%)’, ‘화가 난다(20.9%)’, ‘우울하다(7.3%)’, ‘재미있다(1.7%)’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폭력 목격 후 떠오른 생각과 느낌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지 않았다( $p=.05$ ). 그러나 통계량이 유의수준(.05)에 머물러 있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무섭다(27.4%)’는 응답이 많은 반면, 고등학교는 ‘별 느낌이나 생각이 안 든다(32.0%)’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중학교는 두 반응이 모두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무섭다: 20.6% / 별 느낌이나 생각이 안 든다: 23.9%).

〈표-13〉 학교폭력 목격 후 든 느낌/생각

구분		무섭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답답하다	재미있다	별 느낌/ 생각 안 들	통계량
초등	빈도	48	44	13	39	3	28	18.327 (.050)
	(%)	27.4%	25.1%	7.4%	22.3%	1.7%	16.0%	
중등	빈도	43	42	15	55	4	50	
	(%)	20.6%	20.1%	7.2%	26.3%	1.9%	23.9%	
고등	빈도	22	25	11	40	2	47	
	(%)	15.0%	17.0%	7.5%	27.2%	1.4%	32.0%	
전체	빈도	113	111	39	134	9	125	531
	(%)	21.3%	20.9%	7.3%	25.2%	1.7%	23.5%	100%

\*\*\* $p<.001$ , \*\* $p<.01$ , \* $p<.05$

n=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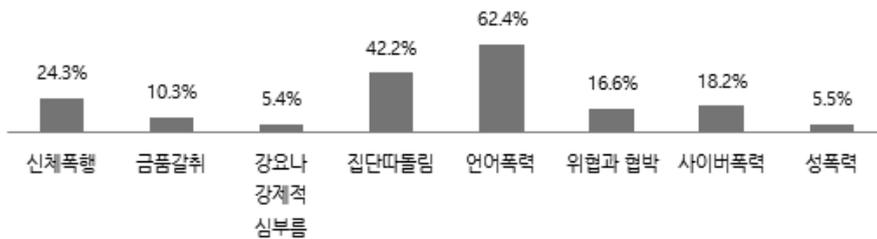
3) 최근 1년 간 가장 많이 목격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최근 1년 간 가장 많이 목격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62.4%)’, ‘집단따돌림(42.2%)’이 가장 우세했다. 다음으로 ‘신체폭행(24.3%)’이나 ‘사이버폭력(18.2%)’, ‘위협과 협박(16.6%)’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인식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한 학교폭력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위 3개 유형(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은 가장 많이 목격한 유형과 동일한 반면, 심각성에서 다소 낮은 순위였던 사이버폭력, 위협과 협박이 목격 유형에서는 더 높은 순위를 보고했다.

<표-14> 최근 1년 간 가장 많이 목격한 학교폭력 유형 (다중응답)

구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위협과 협박	사이버 폭력	성폭력
초등	빈도	35	13	6	76	113	31	25	5
	(%)	20.0%	7.5%	3.7%	43.7%	65.6%	18.1%	14.4%	3.1%
중등	빈도	43	17	9	79	108	24	46	14
	(%)	23.3%	9.3%	4.7%	42.7%	58.0%	12.7%	24.7%	7.3%
고등	빈도	44	21	12	56	90	28	20	8
	(%)	31.0%	15.0%	8.6%	39.6%	64.2%	19.8%	14.4%	5.9%
전체	빈도	121	51	27	210	311	83	91	27
	(%)	24.3%	10.3%	5.4%	42.2%	62.4%	16.6%	18.2%	5.5%

n=921



4)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취한 행동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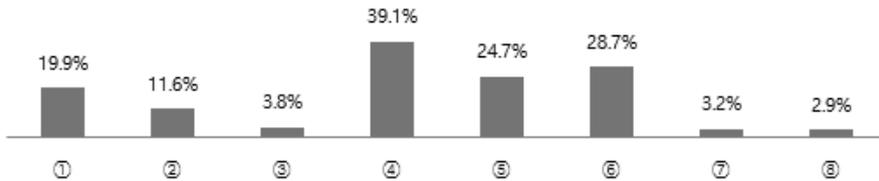
목격 후의 행동 방식은 ‘모른 척 했다(39.1%)’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께 알렸다(28.7%)’,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었다(24.7%)’, ‘함께 말렸다(19.9%)’의 순으로 답했다. ‘상담센터에 상담하였다(3.2%)’는 ‘같이 괴롭혔다(2.9%)’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순위였다. 그러나 보기 중 ‘타인에게 알리거나 도와주었다’는 유사한 유형의 응답들을 합치면 ‘도움 행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취한 행동 (다중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초등	빈도	37	33	8	48	45	58	6	5
	(%)	21.5%	19.6%	4.4%	27.8%	26.6%	34.2%	3.8%	3.2%
중등	빈도	25	11	5	84	41	50	6	2
	(%)	14.1%	6.3%	2.8%	47.9%	23.2%	28.2%	3.5%	1.4%
고등	빈도	35	11	6	57	33	31	3	6
	(%)	25.3%	8.2%	4.4%	41.8%	24.2%	22.5%	2.2%	4.4%
전체	빈도	96	56	19	189	119	139	16	14
	(%)	19.9%	11.6%	3.8%	39.1%	24.7%	28.7%	3.2%	2.9%

\*\*\* $p < .001$ , \*\* $p < .01$ , \* $p < .05$  n=648

- ① 함께 말렸다.
- ② 부모님께 알렸다.
- ③ 경찰에 신고했다.
- ④ 모른 척 했다.
- ⑤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었다.
- ⑥ 선생님께 알렸다.
- ⑦ 상담센터에 상담하였다.
- ⑧ 같이 괴롭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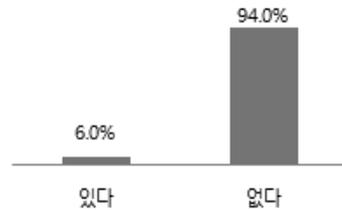
다. 학교폭력 피해

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94%)’는 응답이 우세했다. 6%의 학생들이 1번이라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빈도는 ‘1회(3.3%)’가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비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무와 빈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더 높은 피해경험을 보고했는데, 이는 초등학교가 1~3회 정도의 피해 빈도가 비교적 더 높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표-1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

구분		있다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54	420	32.901***
	(%)	11.4%	88.6%	
중등	빈도	30	730	
	(%)	3.9%	96.1%	
고등	빈도	23	518	
	(%)	4.3%	95.7%	
전체	빈도	107	1668	1,775
	(%)	6.0%	9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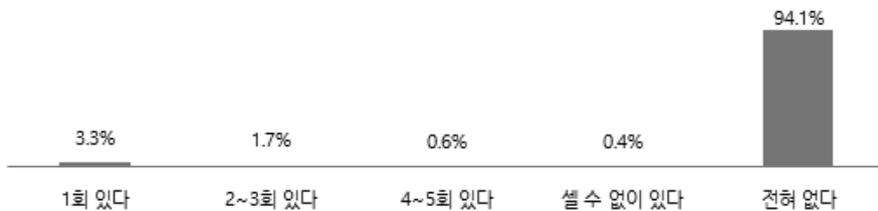


\*\*\* $p < .001$ , \*\* $p < .01$ , \* $p < .05$  n=1,775

<표-1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경험 빈도

구분		1회 있다	2~3회 있다	4~5회 있다	셀 수 없이 있다	전혀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29	16	5	3	420	29.216***
	(%)	6.1%	3.4%	1.1%	0.6%	88.8%	
중등	빈도	15	9	4	2	730	
	(%)	2.0%	1.2%	0.5%	0.3%	96.1%	
고등	빈도	14	5	2	2	518	
	(%)	2.6%	0.9%	0.4%	0.4%	95.7%	
전체	빈도	58	30	11	7	1668	1,774
	(%)	3.3%	1.7%	0.6%	0.4%	94.1%	100%

\*\*\* $p < .001$ , \*\* $p < .01$ , \* $p < .05$  n=1,774



2)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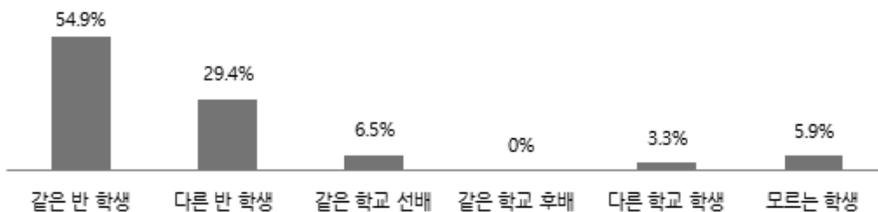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사람으로 절반 이상이 '같은 반 학생(54.9%)'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반 학생(29.4%)'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학교 선배(6.5%)'나 '모르는 학생(5.9%)', '다른 학교 학생(3.3%)'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p<.01$ ). '같은 반 학생'을 주로 지목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다른 반 학생'을 더 우세하게 보고했다.

<표-18>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

구분		같은 반 학생	다른 반 학생	같은 학교 선배	같은 학교 후배	다른 학교 학생	모르는 학생	통계량
초등	빈도	51	18	2	0	3	3	21.730**
	(%)	66.2%	23.4%	2.6%	0%	3.9%	3.9%	
중등	빈도	14	20	6	0	1	1	
	(%)	33.3%	47.6%	14.3%	0%	2.4%	2.4%	
고등	빈도	19	7	2	0	1	5	
	(%)	55.9%	20.6%	5.9%	0%	2.9%	14.7%	
전체	빈도	84	45	10	0	5	9	153
	(%)	54.9%	29.4%	6.5%	0%	3.3%	5.9%	100%

\*\*\* $p<.001$ , \*\* $p<.01$ , \* $p<.05$

n=153



3)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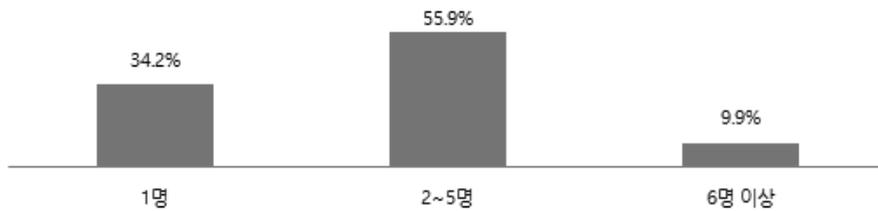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준 학생 수로는 절반 이상이 '2~5명(55.9%)'이라고 응답했다. '1명(34.2%)'이 나를 괴롭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6명 이상(9.9%)'이 가장 적었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피해제공자 수는 학교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p>.05$ ).

<표-19> 최근 1년 간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를 준 대상의 수

구분		1명	2~5명	6명 이상	통계량
초등	빈도	29	45	5	6.259 (.146)
	(%)	36.7%	57.0%	6.3%	
중등	빈도	9	26	5	
	(%)	22.5%	65.0%	12.5%	
고등	빈도	14	14	5	
	(%)	42.4%	42.4%	15.2%	
전체	빈도	52	85	15	152
	(%)	34.2%	55.9%	9.9%	100%

\*\*\* $p<.001$ , \*\* $p<.01$ , \* $p<.05$

n=152



4)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등교거부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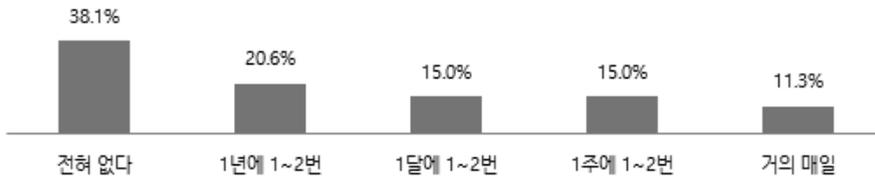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등교거부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반응은 61.9%에 달했다. 그 정도는 '1년에 1~2번(20.6%)', '1달에 1~2번(15.0%)', '1주에 1~2번(15.0%)', '거의 매일(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등교거부충동 빈도는 학교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p>.05$ ).

<표-20>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등교거부충동 빈도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통계량
초등	빈도	28	21	14	9	8	8.100 (.424)
	(%)	35.0%	26.3%	17.5%	11.3%	10.0%	
중등	빈도	15	5	6	10	5	
	(%)	36.6%	12.2%	14.6%	24.4%	12.2%	
고등	빈도	18	7	4	5	5	
	(%)	46.2%	17.9%	10.3%	12.8%	12.8%	
전체	빈도	61	33	24	24	18	160
	(%)	38.1%	20.6%	15.0%	15.0%	11.3%	100%

\*\*\* $p<.001$ , \*\* $p<.01$ , \* $p<.05$

n=160



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자살사고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자살 사고는 ‘전혀 없다(70.7%)’가 가장 많았으나, 29.3%의 학생들이 ‘1년에 1~2번(14.0%)’, ‘1주에 1~2번(6.4%)’, ‘거의 매일(5.1%)’, ‘1달에 1~2번(3.8%)’ 등 자살 사고를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자살사고 빈도는 학교급과 관련이 없다고 파악되었다( $p>.05$ ).

<표-2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자살사고 빈도

구분	빈도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통계량
초등	빈도	57	11	4	4	2	7.373 (.493)
	(%)	73.1%	14.1%	5.1%	5.1%	2.6%	
중등	빈도	27	7	1	4	1	
	(%)	67.5%	17.5%	2.5%	10.0%	2.5%	
고등	빈도	27	4	1	2	5	
	(%)	69.2%	10.3%	2.6%	5.1%	12.8%	
전체	빈도	111	22	6	10	8	157
	(%)	70.7%	14.0%	3.8%	6.4%	5.1%	100%

\*\*\* $p<.001$ , \*\* $p<.01$ , \* $p<.05$

n=157



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복수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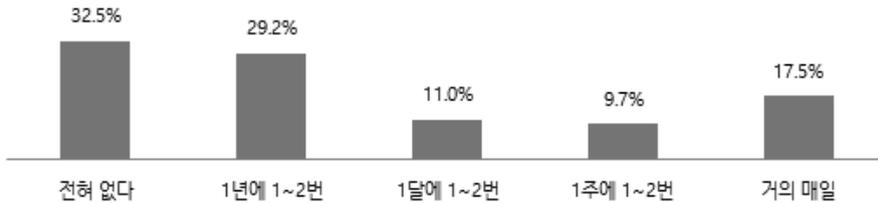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1번이라도 복수충동을 느낀 학생은 전체 응답 수의 67.4%를 차지했다. 복수충동을 느낀 적이 '전혀 없다(32.5%)'고 답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많은 피해 학생들이 '1년에 1~2번(29.2%)'풀이거나 '거의 매일(17.5%)' 복수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 < .05$ ).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복수충동을 더 적은 빈도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로 겪은 복수충동 빈도

구분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통계량	
초등	빈도	17	28	10	10	10	16.686*	
	(%)	22.7%	37.3%	13.3%	13.3%	13.3%		
중등	빈도	14	7	5	2	12		
	(%)	35.0%	17.5%	12.5%	5.0%	30.0%		
고등	빈도	19	10	2	3	5		
	(%)	48.7%	25.6%	5.1%	7.7%	12.8%		
전체	빈도	50	45	17	15	27		154
	(%)	32.5%	29.2%	11.0%	9.7%	17.5%		100%

\*\*\* $p < .001$ , \*\* $p < .01$ , \* $p < .05$

n=154



7)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최초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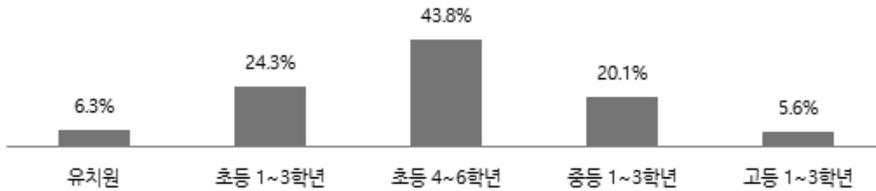
학교폭력을 처음으로 당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가 '초등 4~6학년(43.8%)'이라고 답했다. '초등 1~3학년(24.3%)'과 '중등 1~3학년(20.1%)'이 그 뒤를 이었고, '유치원(6.3%)'이나 '고등 1~3학년(5.6%)'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급에 따른 첫 피해경험 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초등학교의 첫 피해 시기는 '초등 4~6학년'이 가장 많은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등 1~3학년'이 가장 많았다.

〈표-23〉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최초 시기

구분	유치원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고등 1~3학년	통계량
초등	빈도	3	22	43	0	0
	(%)	4.4%	32.4%	63.2%	0.0%	0.0%
중등	빈도	1	10	11	19	0
	(%)	2.4%	24.4%	26.8%	46.3%	0.0%
고등	빈도	5	3	9	10	8
	(%)	14.3%	8.6%	25.7%	28.6%	22.9%
전체	빈도	9	35	63	29	8
	(%)	6.3%	24.3%	43.8%	20.1%	5.6%

\*\*\* $p<.001$ , \*\* $p<.01$ , \* $p<.05$

n=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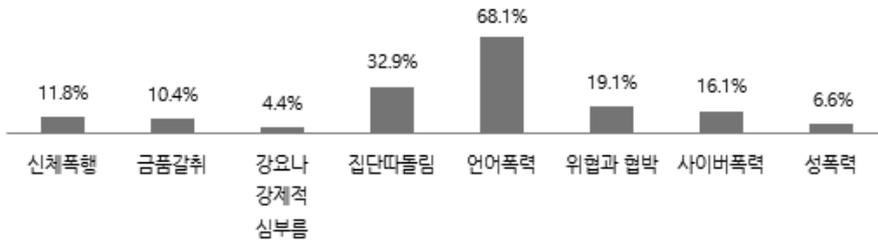
8) 최근 1년 간 주로 겪은 학교폭력 피해유형 (다중응답)

최근 1년 간 주로 겪은 학교폭력 피해로는 절반 이상이 '언어폭력(68.1%)'을 꼽았다. 그 다음 '집단따돌림(32.9%)', '위협과 협박(19.1%)', '사이버폭력(16.1%)', '신체폭행(11.8%)', '금품갈취(10.4%)', '성폭력(6.6%)',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4.4%)'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폭력 목격 경험과 비교하자면, 목격 유형에서 응답한 상위 5개 유형의 목록이 동일하며 응답률의 순위도 유사했다.

<표-24> 최근 1년 간 주로 겪은 학교폭력 피해유형 (다중응답)

구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위협과 협박	사이버 폭력	성폭력
초등	빈도	8	4	2	25	54	10	8	4
	(%)	10.3%	5.9%	2.9%	33.8%	73.5%	13.2%	10.3%	5.9%
중등	빈도	5	6	1	10	27	15	11	4
	(%)	12.5%	15.6%	3.1%	25.0%	68.7%	37.5%	28.1%	9.4%
고등	빈도	5	5	3	13	17	3	5	2
	(%)	14.3%	14.3%	9.5%	40.5%	54.8%	9.5%	14.3%	4.8%
전체	빈도	17	15	6	48	99	28	23	10
	(%)	11.8%	10.4%	4.4%	32.9%	68.1%	19.1%	16.1%	6.6%

n=246



9)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장소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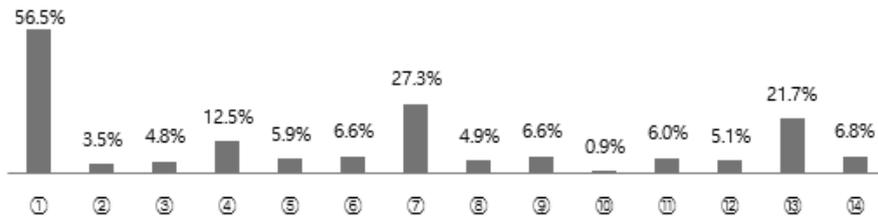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주로 당한 장소로는 ‘교실(56.5%)’로 절반이 넘는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 ‘복도(27.3%)’, ‘인터넷/핸드폰(21.7%)’, ‘운동장(12.5%)’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상위 4개 유형 중 유일하게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은 ‘인터넷/핸드폰’으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2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장소 (다중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초등	빈도	46	1	4	12	2	3	17	3	5	0	2	6	9	6
	(%)	63.2	1.5	5.9	16.2	2.9	4.4	23.5	4.4	7.4	0.0	2.9	8.8	11.8	8.8
중등	빈도	12	2	2	4	2	6	15	4	2	1	5	0	15	2
	(%)	32.3	6.5	6.5	9.7	6.5	16.1	38.7	9.7	6.5	3.2	12.9	0.0	38.7	6.5
고등	빈도	22	2	0	2	4	0	7	0	2	0	2	1	8	1
	(%)	70.7	4.9	0.0	7.3	12.2	0.0	22.0	0.0	4.9	0.0	4.9	2.4	24.4	2.4
전체	빈도	81	5	7	18	8	9	39	7	9	1	9	7	31	10
	(%)	56.5	3.5	4.8	12.5	5.9	6.6	27.3	4.9	6.6	0.9	6.0	5.1	21.7	6.8

n=241

- ① 교실
- ② 학교 가는 길
- ③ 체육관
- ④ 운동장
- ⑤ 학교 매점/식당
- ⑥ 화장실
- ⑦ 복도
- ⑧ 집 근처
- ⑨ 학원
- ⑩ 버스/지하철
- ⑪ 노래방/PC방
- ⑫ 놀이터/공터
- ⑬ 인터넷/핸드폰
- ⑭ 기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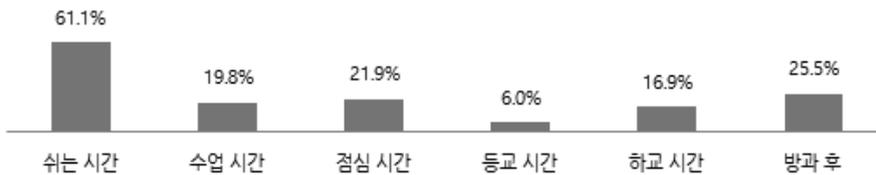
10)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시간대 (다중응답)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주로 당한 시간대로는 절반이 넘는 학생이 ‘쉬는 시간(61.1%)’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 ‘방과 후(25.5%)’, ‘점심시간(21.9%)’, ‘수업시간(19.8%)’, ‘하교시간(16.9%)’, ‘등교시간(6.0%)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2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당한 시간대 (다중응답)

구분		쉬는 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	방과 후
초등	빈도	46	16	13	3	15	12
	(%)	63.2%	22.1%	17.6%	4.4%	20.6%	16.2%
중등	빈도	21	5	11	4	5	17
	(%)	54.8%	12.9%	29.0%	9.7%	12.9%	45.2%
고등	빈도	19	7	7	2	4	7
	(%)	64.1%	23.1%	23.1%	5.1%	12.8%	23.1%
전체	빈도	86	28	31	8	24	36
	(%)	61.1%	19.8%	21.9%	6.0%	16.9%	25.5%

n=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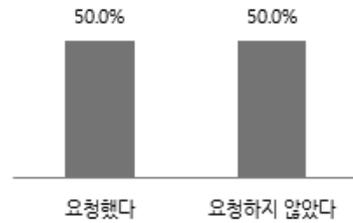
1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요청 관련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50:50의 비율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도움 요청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초등학교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고등학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표-2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요청 여부

구분		요청했다	요청하지 않았다	통계량
초등	빈도	42	29	6.147*
	(%)	59.2%	40.8%	
중등	빈도	19	21	
	(%)	47.5%	52.5%	
고등	빈도	11	22	
	(%)	33.3%	66.7%	
전체	빈도	72	72	144
	(%)	50.0%	50.0%	100%

\*\*\* $p<.001$ , \*\* $p<.01$ , \* $p<.05$  n=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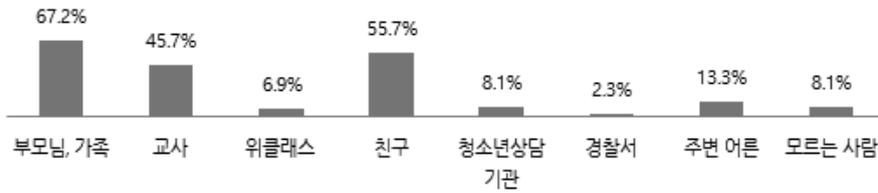
11)-1. 도움 요청 대상 (다중응답)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는 '부모님/가족(67.2%)', '친구(55.7%)', '교사(45.7%)', '주변 어른(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0% 미만의 학생들이 '청소년상담기관(8.1%)', '모르는 사람(8.1%)', '위클래스(6.9%)'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했다.

<표-28> 도움 요청 대상 (다중응답)

구분		부모님, 가족	교사 (담임, 과목)	위클래스 선생님	친구	청소년 상담기관	경찰서	주변 어른	모르는 사람 (인터넷 등)
초등	빈도	31	19	2	23	5	0	2	5
	(%)	64.4%	40.0%	4.4%	46.7%	11.1%	0.0%	4.4%	11.1%
중등	빈도	19	14	4	14	0	1	6	0
	(%)	88.2%	64.7%	17.6%	64.7%	0.0%	5.9%	29.4%	0.0%
고등	빈도	8	6	0	11	2	1	3	2
	(%)	47.6%	38.1%	0.0%	71.4%	9.5%	4.8%	19.0%	9.5%
전체	빈도	57	39	6	48	7	2	11	7
	(%)	67.2%	45.7%	6.9%	55.7%	8.1%	2.3%	13.3%	8.1%

n=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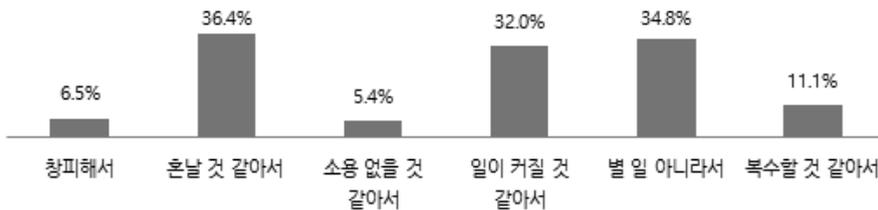
11)-2.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혼날 것 같아서(36.4%)’, ‘별일 아니라서(34.8%)’, ‘일이 커질 것 같아서(32.0%)’의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 ‘복수할 것 같아서(11.1%)’, ‘창피해서(6.5%)’, ‘소용없을 것 같아서(5.4%)’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표-29>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구분	빈도	창피해서	혼날 것 같아서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별 일 아니라서	복수할 것 같아서
초등	빈도	1	12	2	16	8	4
	(%)	2.9%	31.4%	5.7%	42.9%	20.0%	11.4%
중등	빈도	1	11	0	6	15	2
	(%)	4.8%	42.9%	0.0%	23.8%	57.1%	9.5%
고등	빈도	3	7	2	4	6	2
	(%)	16.7%	37.5%	12.5%	20.8%	33.3%	12.5%
전체	빈도	5	30	4	26	28	9
	(%)	6.5%	36.4%	5.4%	32.0%	34.8%	11.1%

n=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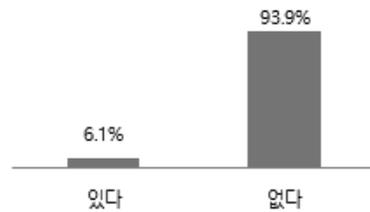
라. 사이버폭력 피해

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1%가 ‘있다’, 93.9%가 ‘없다’라고 답했다.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의 유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표-30>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유무

구분		있다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35	435	2.035 (.361)
	(%)	7.4%	92.6%	
중등	빈도	42	698	
	(%)	5.7%	94.3%	
고등	빈도	29	497	
	(%)	5.5%	94.5%	
전체	빈도	106	1630	1,736
	(%)	6.1%	93.9%	100%



\*\*\* $p<.001$ , \*\* $p<.01$ , \* $p<.05$

2) 사이버폭력 피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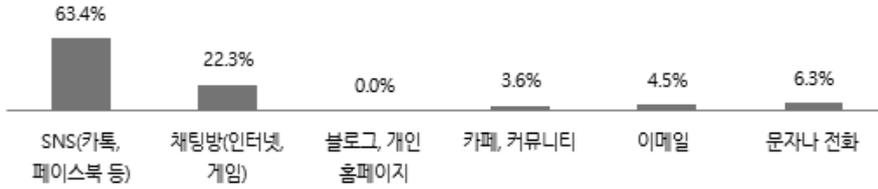
피해를 가장 많이 겪은 사이버 공간으로는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63.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공간은 ‘인터넷, 게임과 같은 채팅방(22.3%)’이었다. 3~6%의 응답으로는 ‘문자나 전화(6.3%)’, ‘이메일(4.5%)’, ‘카페, 커뮤니티(3.6%)’가 있었다. ‘블로그, 개인홈페이지(0.0%)’와 같은 개인적 사이버 공간에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피해 공간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SNS(카톡, 페이스북 등)’ 공간에서 주로 피해를 받은 반면, 초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채팅방(인터넷, 게임)’에서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표-31> 사이버폭력 피해공간

구분		SNS(카톡, 페이스북 등)	채팅방(인터넷, 게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이메일	문자나 전화	통계량
초등	빈도	11	12	0	2	3	6	30.032***
	(%)	32.4%	35.3%	0.0%	5.9%	8.8%	17.6%	
중등	빈도	38	4	0	2	0	0	
	(%)	86.4%	9.1%	0.0%	4.5%	0.0%	0.0%	
고등	빈도	22	9	0	0	2	1	
	(%)	64.7%	26.5%	0.0%	0.0%	5.9%	2.9%	
전체	빈도	71	25	0	4	5	7	112
	(%)	63.4%	22.3%	0.0%	3.6%	4.5%	6.3%	100%

\*\*\* $p<.001$ , \*\* $p<.01$ , \* $p<.05$

n=112



### 3)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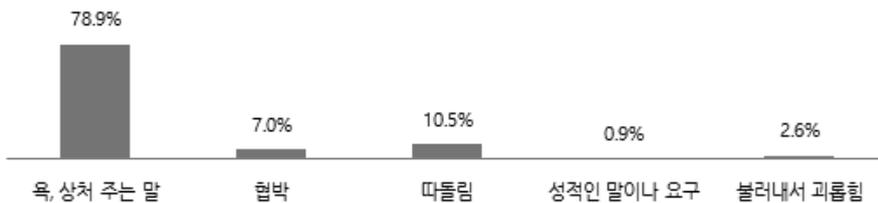
가장 많이 겪은 사이버폭력은 ‘욕, 상처 주는 말(78.9%)’이었다. 그 다음으로 ‘따돌림(10.5%)’, ‘협박(7.0%)’, ‘불러내서 괴롭힘(2.6%)’, ‘성적인 말이나 요구(0.9%)’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피해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비교해 보면, 상위 3개 유형(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위협과 협박)과 동일한 순위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2〉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구분	빈도	욕, 상처 주는 말	협박	따돌림	성적인 말이나 요구	불러내서 괴롭힘	통계량
초등	빈도	33	2	4	0	0	5.852 (.707)
	(%)	84.6%	5.1%	10.3%	0.0%	0.0%	
중등	빈도	36	4	5	0	1	
	(%)	78.3%	8.7%	10.9%	0.0%	2.2%	
고등	빈도	21	2	3	1	2	
	(%)	72.4%	6.9%	10.3%	3.4%	6.9%	
전체	빈도	90	8	12	1	3	114
	(%)	78.9%	7.0%	10.5%	0.9%	2.6%	100%

\*\*\* $p<.001$ , \*\* $p<.01$ , \* $p<.05$

n=114



4) 사이버폭력 피해제공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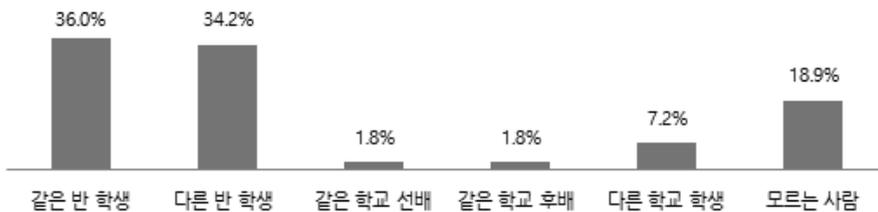
사이버폭력을 가장 많이 제공한 사람은 ‘같은 반 학생(36.0%)’과 ‘다른 반 학생(34.2%)’이 유사한 정도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18.9%)’, ‘다른 학교 학생(7.2%)’, ‘같은 학교 선배(1.8%)’, ‘같은 학교 후배(1.8%)’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01$ ).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표-33> 사이버폭력 피해제공 대상

구분	같은 반 학생	다른 반 학생	같은 학교 선배	같은 학교 후배	다른 학교 학생	모르는 사람	통계량
초등	빈도	17	9	0	2	3	10
	(%)	41.5%	22.0%	0.0%	4.9%	7.3%	24.4%
중등	빈도	11	21	2	0	4	2
	(%)	27.5%	52.5%	5.0%	0.0%	10.0%	5.0%
고등	빈도	12	8	0	0	1	9
	(%)	40.0%	26.7%	0.0%	0.0%	3.3%	30.0%
전체	빈도	40	38	2	2	8	21
	(%)	36.0%	34.2%	1.8%	1.8%	7.2%	18.9%

\*\*\* $p<.001$ , \*\* $p<.01$ , \* $p<.05$

n=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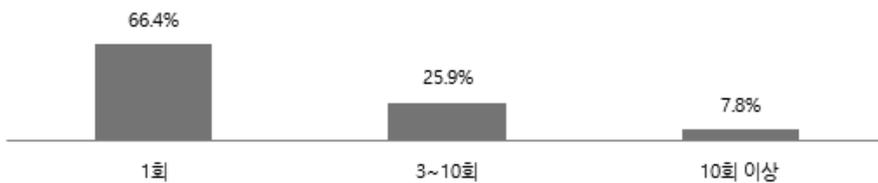
5)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빈도

사이버폭력의 피해 빈도는 '1회(66.4%)'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3~10회(25.9%)', '10회 이상(7.8%)'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피해 경험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p>.05$ ).

〈표-34〉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빈도

구분		1회	3~10회	10회 이상	통계량
초등	빈도	28	10	3	2.984 (.574)
	(%)	68.3%	24.4%	7.3%	
중등	빈도	24	14	4	
	(%)	57.1%	33.3%	9.5%	
고등	빈도	25	6	2	
	(%)	75.8%	18.2%	6.1%	
전체	빈도	77	30	9	116
	(%)	66.4%	25.9%	7.8%	100%

\*\*\* $p<.001$ , \*\* $p<.01$ , \* $p<.05$  n=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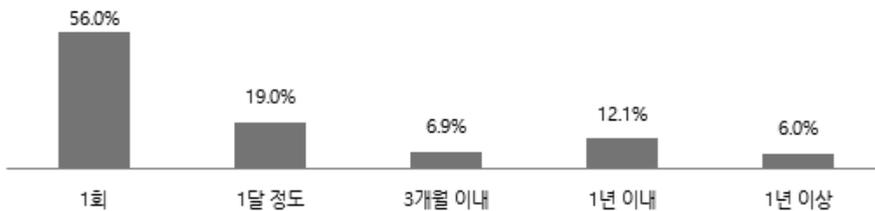
6) 사이버폭력 피해기간

사이버폭력을 오래 경험한 정도로는, '1회(56.0%)'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1달 정도(19.0%)', '1년 이내(12.1%)', '3개월 이내(6.9%)', '1년 이상(6.1%)'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 지속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p>.05$ ).

<표-35> 사이버폭력 피해기간

구분		1회	1달 정도	3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통계량	
초등	빈도	25	11	2	2	1	7.685 (.466)	
	(%)	61.0%	26.8%	4.9%	4.9%	2.4%		
중등	빈도	22	6	4	6	4		
	(%)	52.4%	14.3%	9.5%	14.3%	9.5%		
고등	빈도	18	5	2	6	2		
	(%)	54.5%	15.2%	6.1%	18.2%	6.1%		
전체	빈도	65	22	8	14	7		116
	(%)	56.0%	19.0%	6.9%	12.1%	6.0%		100%

\*\*\* $p<.001$ , \*\* $p<.01$ , \* $p<.05$  n=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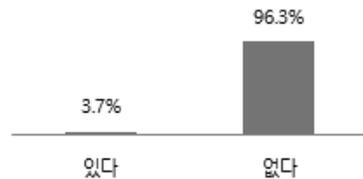
마. 학교폭력 가해

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96.3%)’가 가장 많았다. 가해 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3.7%였다. 학교폭력 행동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96.2%)’를 제외하고, ‘1회(2.4%)’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비교에서 학교폭력행동의 유무와 횟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 < .001$ ).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초등학교가 타학교급에 비해 1회성 학교폭력가해행동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3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무

구분		있다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41	435	43.197***
	(%)	8.6%	91.4%	
중등	빈도	14	737	
	(%)	1.9%	98.1%	
고등	빈도	11	530	
	(%)	2.0%	98.0%	
전체	빈도	66	1702	1,768
	(%)	3.7%	96.3%	100%



\*\*\* $p < .001$ ,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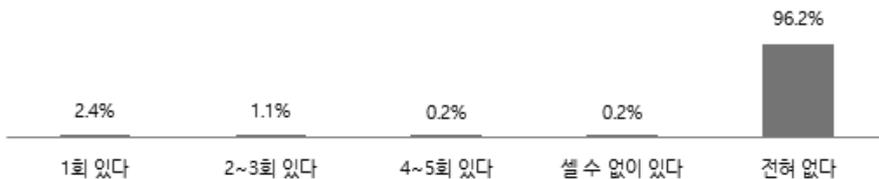
n=1768

<표-3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 빈도

구분		1회 있다	2~3회 있다	4~5회 있다	셀 수 없이 있다	전혀 없다	통계량
초등	빈도	28	12	1	0	435	46.477***
	(%)	5.9%	2.5%	0.2%	0.0%	91.4%	
중등	빈도	9	2	0	2	737	
	(%)	1.2%	0.3%	0.0%	0.3%	98.3%	
고등	빈도	5	5	2	1	530	
	(%)	0.9%	0.9%	0.4%	0.2%	97.6%	
전체	빈도	42	19	3	3	1702	1,769
	(%)	2.4%	1.1%	0.2%	0.2%	96.2%	100%

\*\*\* $p < .001$ , \*\* $p < .01$ , \* $p < .05$

n=1769



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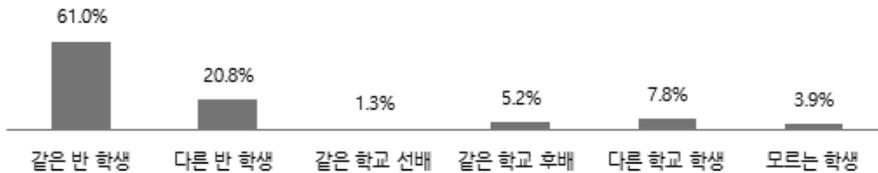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제공한 대상의 절반 이상은 ‘같은 반 학생(61.0%)’이었다. ‘다른 반 학생(20.8%)’이 두 번째로 많은 대상이었고, 그 다음 ‘다른 학교 학생(7.8%)’, ‘같은 학교 후배(5.2%)’, ‘같은 학교 선배(1.3%)’ 등으로 응답했다. 학교 급별에 따른 학교폭력행동대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05$ ).

<표-38>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상

구분		같은 반 학생	다른 반 학생	같은 학교 선배	같은 학교 후배	다른 학교 학생	모르는 학생	통계량
초등	빈도	31	9	0	3	4	2	11,045 (.250)
	(%)	63.3%	18.4%	0.0%	6.1%	8.2%	4.1%	
중등	빈도	11	2	1	0	0	0	
	(%)	78.6%	14.3%	7.1%	0.0%	0.0%	0.0%	
고등	빈도	5	5	0	1	2	1	
	(%)	35.7%	35.7%	0.0%	7.1%	14.3%	7.1%	
전체	빈도	47	16	1	4	6	3	77
	(%)	61.0%	20.8%	1.3%	5.2%	7.8%	3.9%	100%

\*\*\* $p<.001$ , \*\* $p<.01$ , \* $p<.05$

n=77



3)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최초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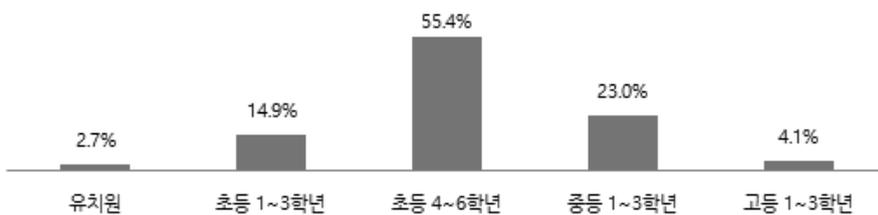
가해경험의 최초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초등 4~6학년(55.4%)’이라고 답했다. ‘중등 1~3학년(23.0%)’과 ‘초등 1~3학년(14.9%)’가 그 뒤를 이었고, ‘고등 1~3학년(4.1%)’이나 ‘유치원(2.7%)’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p < .001$ ).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초등 4~6학년’을 가해 최초 시기로 더 많이 보고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중등 1~3학년’을 가해 최초 시기로 더 많이 보고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현재 자신이 속한 기간을 가해 행동 최초 시기로 주로 보았다. 덧붙여 이 결과는 피해 경험의 최초 시기(초등 4~6학년 > 초등 1~3학년 > 중등 1~3학년)와 순위가 유사하여 학교폭력 경험의 시기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9〉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최초 시기

구분	유치원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등 1~3학년	고등 1~3학년	통계량
초등	빈도	0	8	38	0	0
	(%)	0.0%	17.4%	82.6%	0.0%	0.0%
중등	빈도	1	1	0	12	0
	(%)	7.1%	7.1%	0.0%	85.7%	0.0%
고등	빈도	1	2	3	5	3
	(%)	7.1%	14.3%	21.4%	35.7%	21.4%
전체	빈도	2	11	41	17	3
	(%)	2.7%	14.9%	55.4%	23.0%	4.1%

\*\*\* $p < .001$ , \*\* $p < .01$ , \* $p < .05$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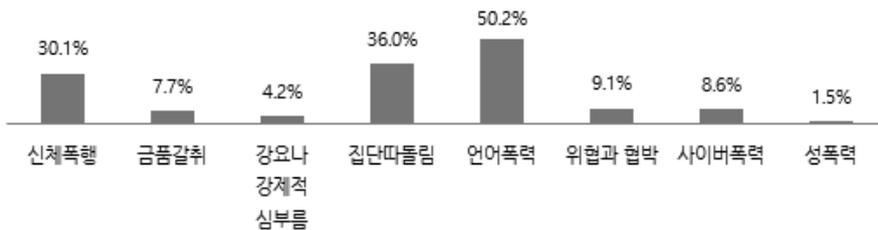
4) 최근 1년 간 주로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 유형 (다중응답)

최근 1년 간 자주 행한 학교폭력 가해유형으로는 절반의 학생들이 ‘언어폭력(50.2%)’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따돌림(36.0%)’, ‘신체폭행(30.1%)’이 뒤따랐다. 이어 ‘위협과 협박(9.1%)’, ‘사이버폭력(8.6%)’, ‘금품갈취(7.7%)’,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4.2%)’, ‘성폭력(1.5%)’이 차지했다. 학교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과 비교해 보면, 보고된 상위 5개 유형과 목록이 동일하며 그 순위도 유사했다.

<표-40> 최근 1년 간 주로 행사한 학교폭력 가해유형 (다중응답)

구분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위협과 협박	사이버 폭력	성폭력
초등	빈도	13	2	1	17	24	3	1	1
	(%)	27.3%	4.5%	2.3%	36.4%	50.0%	6.8%	2.3%	2.3%
중등	빈도	6	1	1	6	5	1	4	0
	(%)	41.7%	8.3%	8.3%	41.7%	33.3%	8.3%	25.0%	0.0%
고등	빈도	3	2	1	3	8	2	2	0
	(%)	26.7%	20.0%	6.7%	26.7%	73.3%	20.0%	13.3%	0.0%
전체	빈도	22	6	3	26	37	7	6	1
	(%)	30.1%	7.7%	4.2%	36.0%	50.2%	9.1%	8.6%	1.5%

n=108



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장소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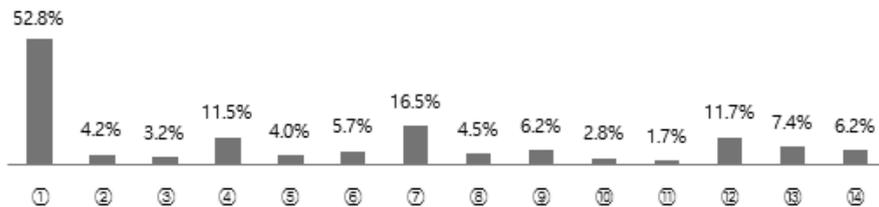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주로 행한 장소로 절반 이상이 '교실(52.8%)'을 꼽았다. 그 다음, '복도(16.5%)', '놀이터/공터(11.7%)', '운동장(11.5%)'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인터넷/핸드폰'을 제외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서 피해 장소에 대해 보고한 순위와 유사하였다.

<표-4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장소 (다중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초등	빈도	23	1	1	4	2	2	3	3	3	0	0	6	1	3
	(%)	50.0	2.4	2.4	9.5	4.8	4.8	7.1	7.1	7.1	0.0	0.0	14.3	2.4	7.1
중등	빈도	9	1	1	2	0	1	5	0	1	1	1	1	1	1
	(%)	58.3	8.3	8.3	16.7	0.0	8.3	33.3	0.0	8.3	8.3	8.3	8.3	8.3	8.3
고등	빈도	9	1	0	2	1	1	4	0	0	1	0	1	3	0
	(%)	56.3	6.3	0.0	12.5	6.3	6.3	31.3	0.0	0.0	6.3	0.0	6.3	25.0	0.0
전체	빈도	37	3	2	8	3	4	12	3	4	2	1	8	5	4
	(%)	52.8	4.2	3.2	11.5	4.0	5.7	16.5	4.5	6.2	2.8	1.7	11.7	7.4	6.2

n=96

- ① 교실
- ② 학교 가는 길
- ③ 체육관
- ④ 운동장
- ⑤ 학교 매점/식당
- ⑥ 화장실
- ⑦ 복도
- ⑧ 집 근처
- ⑨ 학원
- ⑩ 버스/지하철
- ⑪ 노래방/PC방
- ⑫ 놀이터/공터
- ⑬ 인터넷/핸드폰
- ⑭ 기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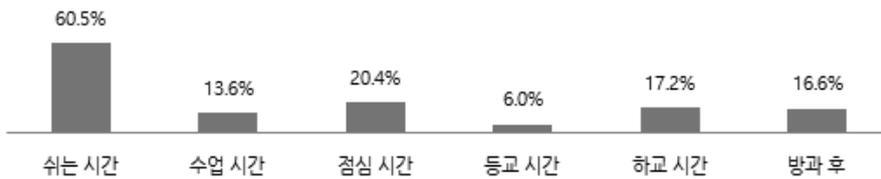
6)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시간대 (다중응답)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을 주로 행한 시간대는 절반 이상이 ‘쉬는 시간(60.5%)’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 ‘점심시간(20.4%)’, ‘하교시간(17.2%)’, ‘방과 후(16.6%)’, ‘수업시간(13.6%)’, ‘등교시간(6.0%)’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4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주로 행사한 시간대 (다중응답)

구분		쉬는 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등교시간	하교시간	방과 후
초등	빈도	27	4	8	4	10	6
	(%)	59.5%	9.5%	16.7%	9.5%	21.4%	14.3%
중등	빈도	10	2	5	0	1	2
	(%)	66.7%	16.7%	33.3%	0.0%	8.3%	16.7%
고등	빈도	7	3	2	0	2	3
	(%)	56.3%	25.0%	18.8%	0.0%	12.5%	25.0%
전체	빈도	44	10	15	4	12	12
	(%)	60.5%	13.6%	20.4%	6.0%	17.2%	16.6%

n=97



7)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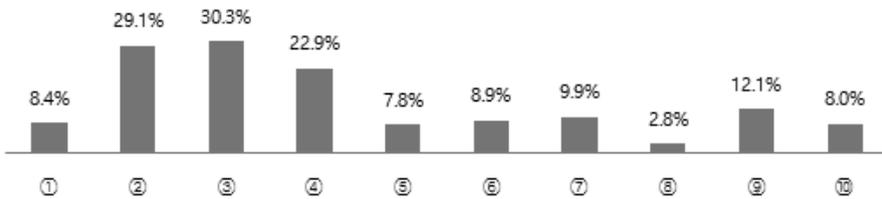
학교폭력 행동을 하게 된 이유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30.3%)’와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29.1%)’라는 응답이 유사한 수치로 가장 우세했다. 다음으로 ‘그냥 장난으로(22.9%)’,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3>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다중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초등	빈도	3	13	12	11	4	4	4	0	9	3
	(%)	7.3	29.3	26.8	24.4	9.8	9.8	9.8	0.0	19.5	7.3
중등	빈도	1	2	7	2	1	1	1	1	0	2
	(%)	8.3	16.7	50.0	16.7	8.3	8.3	8.3	8.3	0.0	16.7
고등	빈도	2	5	2	3	0	1	2	1	0	0
	(%)	12.5	43.8	18.8	25.0	0.0	6.3	12.5	6.3	0.0	0.0
전체	빈도	6	21	22	16	6	6	7	2	9	6
	(%)	8.4	29.1	30.3	22.9	7.8	8.9	9.9	2.8	12.1	8.0

n=101

- ① 피해 학생이 약해보여서
- ⑥ 피해 학생의 외모나 모습이 남들과 달라서
- ②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
- ⑦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보복하려고
- ③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 ⑧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 ④ 그냥 장난으로
- ⑨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
- ⑤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 ⑩ 아무 이유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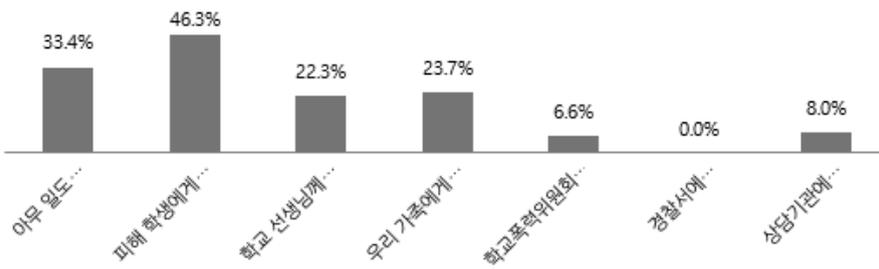
8)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한 후 생긴 일 (다중응답)

학교폭력 행동을 한 이후 생긴 일로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46.3%)’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33.4%)’가 뒤를 따랐다. 이어 ‘가족(23.7%)이나 선생님(22.3%)께 혼났다’는 응답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8.0%)’거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인한 처벌 및 징계 조치(6.6%)’는 전체 비중에 비해 크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와 처벌을 받은 경우(0.0%)’는 보고되지 않았다.

<표-44>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한 후 생긴 일 (다중응답)

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	학교 선생님께 혼났다	우리 가족에게 혼났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처벌을 받았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상담기관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초등	빈도	14	21	9	12	0	0	3
	(%)	31.7%	46.3%	19.5%	26.8%	0.0%	0.0%	7.3%
중등	빈도	4	9	5	5	2	0	2
	(%)	25.0%	58.3%	33.3%	33.3%	16.7%	0.0%	16.7%
고등	빈도	6	4	2	0	2	0	0
	(%)	50.0%	31.3%	18.8%	0.0%	18.8%	0.0%	0.0%
전체	빈도	24	33	16	17	5	0	6
	(%)	33.4%	46.3%	22.3%	23.7%	6.6%	0.0%	8.0%

n=101



9)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행동을 그만 둔 원인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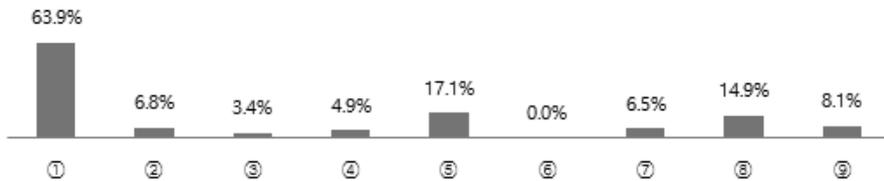
학교폭력 행동을 그만 둔 이유로는 ‘스스로 뉘우침(63.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 ‘부모나 교사의 충고 및 꾸중(17.1%)’이나 ‘개인상담/집단상담(14.9%)’이 뒤를 이었다. 앞서 학교폭력에서 생긴 일에 대한 일 중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행동(8.0%)’이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여, 학교폭력 행동을 그만 둔 원인으로 ‘개인상담/집단상담’이 3위로 보고된 이 결과는 상담 개입 방식의 가능성과 효과성을 짐작하게 한다.

<표-45>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행동을 그만 둔 원인 (다중응답)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초등	빈도	30	2	0	1	5	0	0	8	4
	(%)	66.7%	4.8%	0.0%	2.4%	11.9%	0.0%	0.0%	16.7%	9.5%
중등	빈도	10	1	2	2	6	0	2	2	0
	(%)	66.7%	8.3%	16.7%	16.7%	41.7%	0.0%	16.7%	16.7%	0.0%
고등	빈도	6	2	0	0	1	0	2	1	2
	(%)	50.0%	12.5%	0.0%	0.0%	6.3%	0.0%	18.8%	6.3%	12.5%
전체	빈도	46	5	2	4	12	0	5	11	6
	(%)	63.9%	6.8%	3.4%	4.9%	17.1%	0.0%	6.5%	14.9%	8.1%

n=91

- ① 스스로 뉘우침
- ②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징계
- ③ 함께 괴롭힌 친구/선후배와 사이 멀어짐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처교육
- ⑤ 부모나 교사의 충고/꾸중
- ⑥ 경찰의 처벌/징계
- ⑦ 학년이 바뀐, 전학, 졸업 등
- ⑧ 개인상담/집단상담
- ⑨ 지금도 가해 행동을 계속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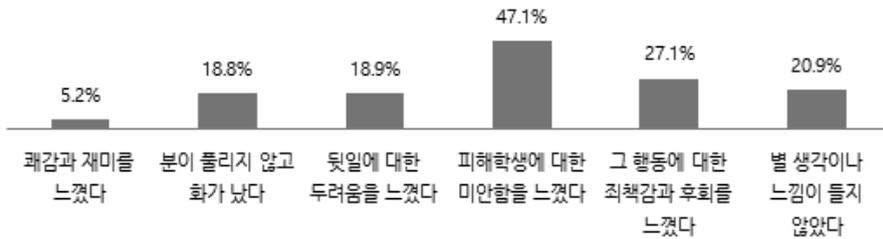
10) 학교폭력 행동 후 든 느낌과 생각 (다중응답)

학교폭력행동 후 느낀 느낌이나 생각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47.1%)’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죄책감과 후회(27.1%)’, ‘별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다(20.9%)’는 응답이 유사한 수치를 보고했다. 이어서 ‘뒷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18.9%)’거나 ‘분이 풀리지 않아 화가 났다(18.8%)’는 경우도 매우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쾌감과 재미를 느꼈다(5.2%)’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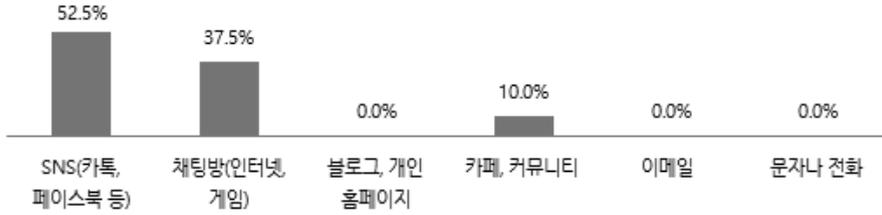
〈표-46〉 학교폭력 행동 후 든 느낌과 생각 (다중응답)

구분		쾌감과 재미를 느꼈다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났다	뒷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별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다
초등	빈도	1	8	9	25	12	8
	(%)	2.3%	16.3%	18.6%	53.5%	25.6%	16.3%
중등	빈도	1	6	4	7	5	2
	(%)	8.3%	41.7%	25.0%	50.0%	33.3%	16.7%
고등	빈도	2	0	2	2	3	5
	(%)	12.5%	0.0%	12.5%	18.8%	25.0%	43.8%
전체	빈도	4	14	14	32	20	15
	(%)	5.2%	18.8%	18.9%	47.1%	27.1%	20.9%

n=99







### 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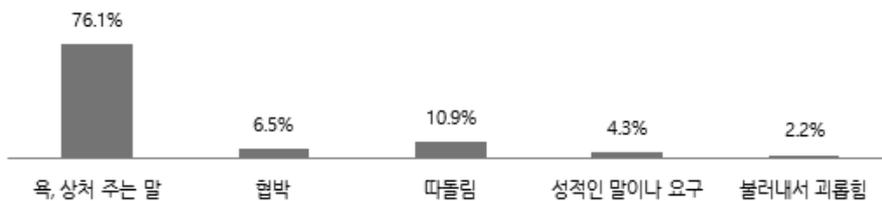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은 ‘욕, 상처 주는 말(76.1%)’이었다. 그 다음으로 ‘따돌림(10.9%)’, ‘협박(6.5%)’, ‘성적인 말이나 요구(4.3%)’, ‘불러내서 괴롭힘(2.2%)’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은 학교급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p>.05$ ).

〈표-49〉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구분	구분	욕, 상처 주는 말	협박	따돌림	성적인 말이나 요구	불러내서 괴롭힘	통계량
초등	빈도	10	0	3	0	1	9.499 (.158)
	(%)	71.4%	0.0%	21.4%	0.0%	7.1%	
중등	빈도	14	1	0	0	0	
	(%)	93.3%	6.7%	0.0%	0.0%	0.0%	
고등	빈도	11	2	2	2	0	
	(%)	64.7%	11.8%	11.8%	11.8%	0.0%	
전체	빈도	35	3	5	2	1	46
	(%)	76.1%	6.5%	10.9%	4.3%	2.2%	100%

\*\*\* $p<.001$ , \*\* $p<.01$ , \* $p<.05$

n=46



4)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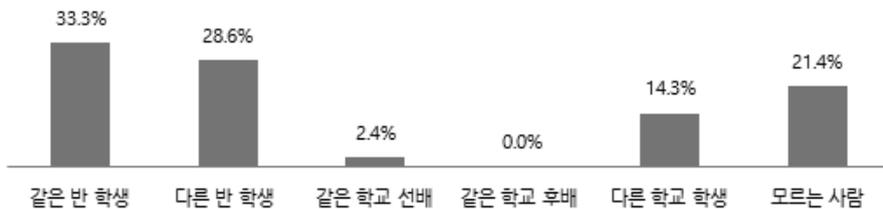
사이버폭력의 주요 대상으로는 ‘같은 반 학생(33.3%)’, ‘다른 반 학생(28.6%)’이 유사하게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21.4%)’, ‘다른 학교 학생(14.3%)’, ‘같은 학교 선배(2.4%)’의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은 학교급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p>.05$ ).

<표-50>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구분		같은 반 학생	다른 반 학생	같은 학교 선배	같은 학교 후배	다른 학교 학생	모르는 사람	통계량
초등	빈도	3	4	0	0	1	5	6.403 (.649)
	(%)	23.1%	30.8%	0.0%	0.0%	7.7%	38.5%	
중등	빈도	6	4	1	0	2	1	
	(%)	42.9%	28.6%	7.1%	0.0%	14.3%	7.1%	
고등	빈도	5	4	0	0	3	3	
	(%)	33.3%	26.7%	0.0%	0.0%	20.0%	20.0%	
전체	빈도	14	12	1	0	6	9	42
	(%)	33.3%	28.6%	2.4%	0.0%	14.3%	21.4%	100%

\*\*\* $p<.001$ , \*\* $p<.01$ , \* $p<.05$

n=42



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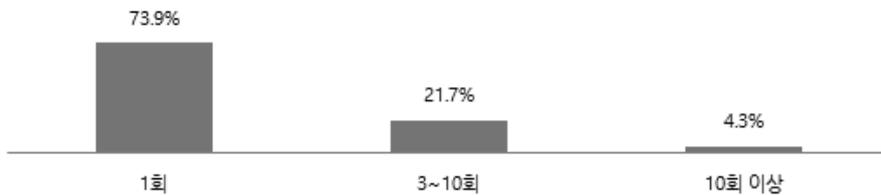
사이버폭력의 가해 빈도는 '1회(73.9%)'가 절반을 훨씬 넘겨 가장 많았고, '3~10회(21.7%)', '10회 이상(4.3%)'이 그 뒤를 따랐다.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빈도를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초등학생은 1회성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보고한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러 차례의 가해경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5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빈도

구분		1회	3~10회	10회 이상	통계량
초등	빈도	15	0	0	10.977**
	(%)	100.0%	0.0%	0.0%	
중등	빈도	11	4	0	
	(%)	73.3%	26.7%	0.0%	
고등	빈도	8	6	2	
	(%)	50.0%	37.5%	12.5%	
전체	빈도	34	10	2	46
	(%)	73.9%	21.7%	4.3%	100%

\*\*\* $p < .001$ , \*\* $p < .01$ , \* $p < .05$

n=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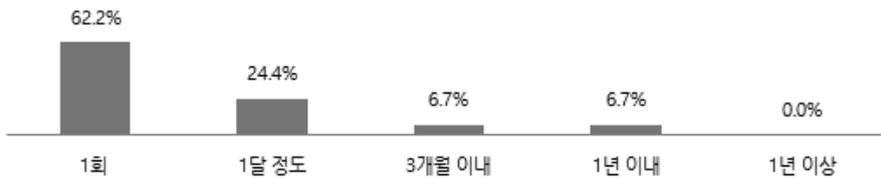
6) 사이버폭력 가해기간

사이버폭력의 지속성을 묻자, 절반 이상이 '1회(62.2%)'라고 답했고, '1달 정도(24.4%)'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3개월 이내(6.7%)', '1년 이내(6.7%)'가 동일한 수치를 보고했다.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지속 기간을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p<.01$ ). 초등학교의 사이버폭력은 1회성이 강한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의 지속성이 더 길었다.

<표-52> 사이버폭력 가해기간

구분		1회	1달 정도	3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통계량
초등	빈도	14	0	0	0	0	15.144**
	(%)	100.0%	0.0%	0.0%	0.0%	0.0%	
중등	빈도	9	4	1	1	0	
	(%)	60.0%	26.7%	6.7%	6.7%	0.0%	
고등	빈도	5	7	2	2	0	
	(%)	31.3%	43.8%	12.5%	12.5%	0.0%	
전체	빈도	28	11	3	3	0	45
	(%)	62.2%	24.4%	6.7%	6.7%	0.0%	100%

\*\*\* $p<.001$ , \*\* $p<.01$ , \* $p<.05$



사. 추가 분석 I: 다문화여부와 학교폭력 경험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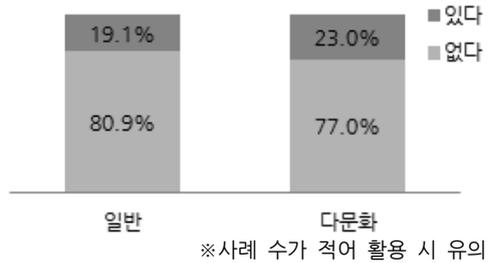
다문화가정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청소년(편의상 ‘일반가정청소년’으로 표기)이 학교폭력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다만,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사례 수가 일반 사례 수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 및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율(23.0%)이 일반가정청소년(19.1%)보다 3.9%p 높았다.

〈표-53〉 다문화 여부와 학교폭력 목격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일반	빈도	321	1364
	(%)	19.1%	80.9%
다문화	빈도	23	77
	(%)	23.0%	77.0%

n=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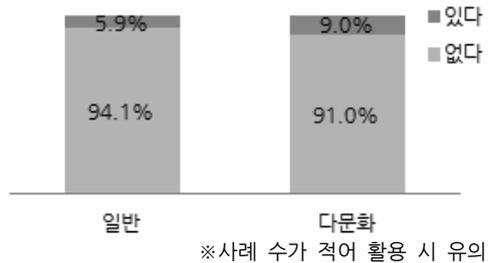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정청소년(9.0%)이 일반가정청소년(5.9%)보다 3.1%p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54〉 다문화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일반	빈도	98	1577
	(%)	5.9%	94.1%
다문화	빈도	9	91
	(%)	9.0%	91.0%

n=1,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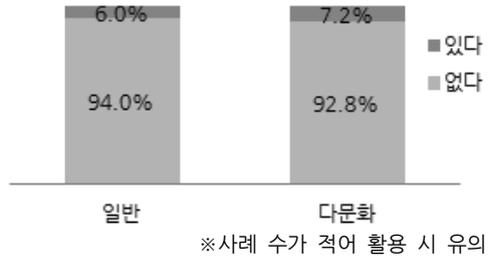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아동청소년(7.2%)이 일반가정청소년(6.0%)보다 1.2%p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55〉 다문화 여부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일반	빈도	99	1540
	(%)	6.0%	94.0%
다문화	빈도	7	90
	(%)	7.2%	92.8%

n=1,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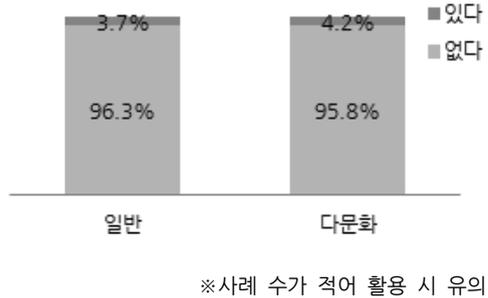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율(4.2%)이 일반가정청소년(3.7%)보다 0.5%p 높았다.

〈표-56〉 다문화 여부와 학교폭력 가해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일반	빈도	62	1610
	(%)	3.7%	96.3%
다문화	빈도	4	92
	(%)	4.2%	95.8%

n=1,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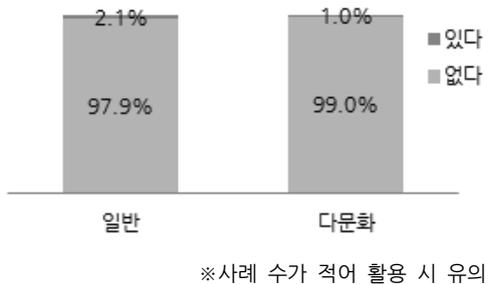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정청소년(1.0%)이 일반가정청소년의 비율(2.1%)보다 1.1%p 낮았다.

〈표-57〉 다문화 여부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일반	빈도	35	1608
	(%)	2.1%	97.9%
다문화	빈도	1	95
	(%)	1.0%	99.0%

n=1,739



## 아. 추가 분석 II: 학교폭력 방관 정도와 집단 간의 관련성

### 1) 성별과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관련성: t-검정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방관 총점을 비롯한 자기방어, 무관심은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 < .001 \sim p < .05$ ). 쌍방과오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이 결과는 여학생일수록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관 태도 및 행동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서미정, 2008; 황경익, 2012; Salmivalli, 1996)와 일치한다.

〈표-58〉 성별과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관련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집단별	전체	집단별	전체	
방관총점	남	40.47	41.67	11.137	10.677	-4.945***
	여	42.95		10.014		
자기방어	남	15.90	16.76	5.468	5.426	-7.000***
	여	17.67		5.232		
무관심	남	12.32	12.50	4.137	3.990	-2.032*
	여	12.70		3.821		
쌍방과오	남	12.25	12.41	3.910	3.709	-1.868
	여	12.58		3.478		

\*\*\* $p < .001$ , \*\* $p < .01$ , \* $p < .05$

n=1,798 / 남 927명, 여 87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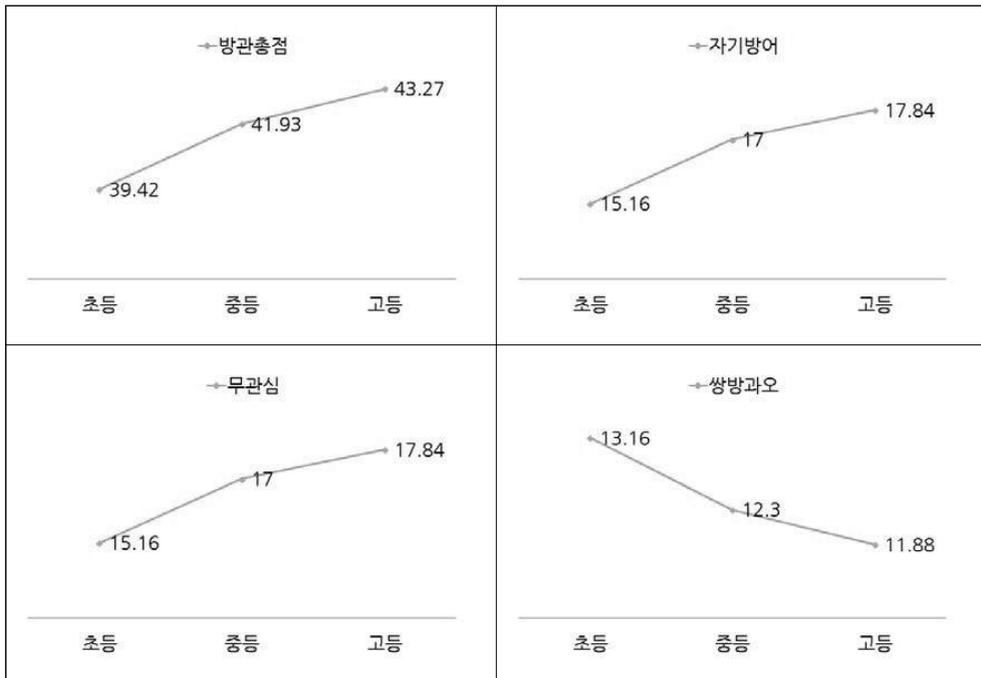
### 2) 학교급과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관련성: 변량분석(ANOVA)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실시 결과, 전체 방관총점을 비롯해 방관의 하위 변인인 자기방어, 무관심, 쌍방과오 모두 학교급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어떤 학교급 간의 차이가 유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이용하여 사후검증(post hoc)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방관 정도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방어와 무관심 정도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각각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반대로, 쌍방과오 정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다시 말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기방어, 무관심을 비롯한 전체적인 방관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폭력을 ‘피·가해학생 둘 다 잘못된 것’이라고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9〉 학교급과 학교폭력 방관 정도의 관련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ost hoc
방관총점	초등	487	39.42	10.797	17.461***	초등<중등,고등
	중등	771	41.93	10.648		
	고등	548	43.27	10.288		
	전체	1806	41.66	10.677		
자기방어	초등	487	15.16	5.478	33.905***	초등<중등<고등
	중등	771	17.00	5.249		
	고등	548	17.84	5.292		
	전체	1806	16.76	5.421		
무관심	초등	487	11.10	3.938	52.558***	초등<중등<고등
	중등	771	12.62	3.868		
	고등	548	13.56	3.844		
	전체	1806	12.50	3.989		
쌍방과오	초등	487	13.16	3.946	16.350***	초등,중등>고등
	중등	771	12.30	3.645		
	고등	548	11.88	3.467		
	전체	1806	12.41	3.708		

\*\*\* $p < .001$ , \*\* $p < .01$ , \* $p < .05$



## V. 논 의

### 1. 요약

2016년 영등포구학교폭력실태조사는 첫째, 관내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학교폭력의 경향성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노력해야 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관내 총 1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체적으로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약 19%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1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목격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말리거나 도와준 경우도 많았으나, 모른 척했다는 방관적 태도 또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목격, 피해 및 가해 경험자 모두에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겪은 학생들 중 60% 이상은 등교거부충동과 복수충동에 시달리고, 약 30%는 자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즉 정서 및 적응 면에서 이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가해 이유를 ‘오해와 갈등’, ‘피해 학생의 잘못’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해 후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미안함과 후회’를 보이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학교폭력 경험은 주로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밖을 벗어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언어폭력’이 가장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인 것처럼 사이버폭력도 ‘육과 상처 주는 말’이 가장 우세한데, 이는 학교폭력의 플랫폼이 사이버상으로 옮겨 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플랫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아는 사람’이 대다수인 공간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게임 채팅방이 그 뒤를 이었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청소년이 학교폭력을 경험할 취약성이 전반적으로 더 클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사례 수가 적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여학생일수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방관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끝으로 지역사회 및 센터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대안과 그와 관련된 상세한 조사 결과는 다음 절에서 논의되었다.

### 2. 제 언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실천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학교급별 특성에 맞춘,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책으로 ‘모두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는(one-size-fits-all)’ 접근은 그 효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영등포구학교폭력실태조사(이하 본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초중고별 학교폭력 실태 결과는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 가해, 목격 경험을 가장 많이 보고한 시기는 초등학교이다. 이는 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이하 16년 교육부 조사)의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모든 학교급은 주로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무서워했고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학교폭력 목격 시 친구가 되어주거나 부모 및 교사에게 그 상황을 알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이 일회성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했으며, 다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폭력의 지속기간도 길어졌다.

종합하면, 초등학생들은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므로 피해 또는 가해 당사자가 될 위험성이 가장 큰 반면, 학교폭력에서 방어자의 역할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높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검증된 학교폭력의 자연평화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학교폭력은 사후 개입보다 예방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폭력의 장기화, 심각화가 진행되기 전에 초등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 나. 학교폭력의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가해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의 불균형과 더불어 그들을 포함한 집단의 역동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의 역동을 변화시키고, 불균형 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역할은 다수의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

본 조사와 교육부 조사 모두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행동은 도움 또는 알림 행동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주변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소극적·적극적인 방어자 역할을 해 주는 셈이다. 그러나 다중 응답으로 학교폭력 목격 후 행동을 측정한 본 조사의 경우, 방관 행동의 보기는 1개(모른 척 했다)뿐인데 반해, 도움 및 알림 행동에 대한 보기는 6개나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이 방관 행동에 비해 빈번하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 도움 및 알림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유사한 행동들을 여러 개 했기 때문에, 다중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모른 척 했다'가 본 조사에서 39.1%나 차지하는 것은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다. 무엇보다 본 조사의 방관 척도 결과를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방관적 태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 방관에 대한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덧붙여, 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 '친구'가 2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는데 이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장 빨리 손 내밀 수 있는 대상이자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이 바로 자신의 '또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는 '또래 집단'이 학교폭력예방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관내 고등학교 또래상담 연합 동아리 <헤아림>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솔리언또래상담집단상담>도 학교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방어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한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고안해보아야 할 것이다.

#### 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특성에 걸맞은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주변인의 역할 증대와 함께,

피해 학생의 심리적 증상에 걸맞은 개입도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일종의 복합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간주하고 있는데, 학교폭력과 같이 지속적인 대인관계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조절의 실패로 인한 충동성(김영신 등, 2001), 부정적인 자아 개념(신혜섭, 2005)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경험 후 61.9%의 학생들이 등교거부충동을 느꼈고 29.3%가 자살사고를 경험했으며 67.4%가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호소하는 이차적 심리적 증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증상을 파악하고,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학교폭력 행동 이후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어떤 요소가 학교폭력을 그만두게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 많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함'(47.1%), '죄책감과 후회'(27.1%) 등을 느꼈으나 '별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다(20.9%)'거나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났다(18.8%)'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역지사지 등 피해 학생에게 인지적으로 공감하는 훈련으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대상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들의 분노를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돕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개입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 라.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것이 학교폭력이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 '보이지 않는', '학교 밖에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이버폭력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사이버폭력의 응답률 자체가 높진 않았으나 그 폭력의 성격이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관계 지향적이고 언어폭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이, 아는 사람들과 친교를 위해 함께 소통하는 공간에서 '욕, 상처 주는 말'의 형태로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이버폭력이 조장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달리,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더 쉽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의 전염성이 더 크므로 적절한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이용과도 관련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단순히 학교폭력의 하위 요인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해칠 소지가 큰 사항임을 고려해야 한다.

#### 마.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유형이자 목적·피해 및 가해 경험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유형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었다. 유사하게, 사이버폭력의 피·가해 경험에서 가장 많이 겪은 유형 또한 '욕, 상처받는 말'이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로

각각 ‘그냥 장난으로(46.8%)’ 또는 ‘서로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30.3%)’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 이유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또래 간 의사소통 때문일 수 있다. 대개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폭력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소통의 오류로 인해 생겨난 오해와 갈등을 건강한 언어로 처리하는 경험이 부족할 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은 일종의 관계적 폭력으로서,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은 앞으로의 대인관계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집단따돌림은 집단 역동이 발휘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감이 분산되고 폭력에 대한 둔감성이 커지면서 폭력의 수위가 커질 위험이 있다. 학교폭력에서 자주 겪은 유형 중 3위를 차지하는 ‘신체 폭행’이 이와 같은 맥락에 부합된다.

즉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유형이자 더 심각한 폭력으로 변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과 또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훈련과 안전한 집단 역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개입 형태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세부 대상 및 주제(예: 갈등 상황)별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

#### 바. 다문화가정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그에 따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 및 결과 분석이었으며,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에 다문화가정청소년과 일반가정청소년의 학교폭력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사이버가해경험을 제외하고 학교폭력 목적, 피해(사이버 포함), 가해 경험에서 모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또래 관계를 비롯한 학교 적응에 더 취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자극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사례수가 매우 적었으며(n=101) 통계적 유의성을 보고하진 않았으므로, 본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학교 적응 및 심리적 건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전(全)대상에게 하나의 개입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취약성이 큰 다문화가정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개입 방식을 제공한다면 더 큰 효과성 및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청소년 상담 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50%였다. 다중 응답으로 요청한 대상을 살펴 본 결과, 부모님 및 가족, 친구,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각각 67.2%, 55.7%, 45.7%였다. 그러나 청소년상담기관이나 위클래스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각각 8.1%, 6.9%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상담기관에 요청한 경우는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응답률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학교폭력 당사자에게 청소년 및 학교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존재 혹은 유용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답답함’, ‘무서움’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보고했고, 특히

적지 않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이후 자살 사고, 등교 거부 및 복수충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편,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그냥 장난으로’ 행사하거나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그들의 공감 능력 및 또래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도 필요하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고 완료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정서적 돌봄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지점은 학교폭력이 더 이상 피·가해 당사자들만이 학교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을 알리는 행동도 중요하겠으나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의 연계와 협력은 그보다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부모 및 가족, 교사,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받은 부모, 학교 및 또래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안내하고 함께 개입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학교폭력 사례를 적절히 처리하고 연계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에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도 위와 같은 필요성을 기반으로 지원·연계 범위에 개인,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하였고, 센터 내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영등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즉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차 피해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홍보해야하고 그 자원들의 기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3. 의 의

본 조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등포구에서 처음으로 관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전수조사는 시행되어 왔으나 영등포구의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안을 마련하는 시도는 본 조사가 최초였다. 둘째, 영등포구의 특성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의 특성을 별도로 파악하였다. 셋째, 학교폭력의 학교급별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은 연령별, 교급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개입 방식의 차별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교급별 특성을 검증하는 것은 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넷째, 학교폭력 목격자 및 방관 성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가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목격 경험의 유무 및 정도, 양상,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방관 정도가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학교급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학교폭력 실태에 따른 주제별 방안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고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콘텐츠가 효과적인 것인지 제언하였다.

본 조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과정에서의 한계이다. 본 조사는 영등포구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가정했으나 실시상의 한계로 인해 편의표집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탈한 표본들의 통계적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중복 경험 집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은 최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구별되기 어려

은 현상을 겪는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중복으로 경험하는 집단이 얼마나 있으며 그들의 심리사회적 양상이 어떤지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유형별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한 층위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개입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경험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목격 경험 측정의 한계이다. 응답자의 반응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이 '목격 경험'이었는데, 이는 '목격'을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응답자들은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다고 보고하지만, 목격 경험에 따른 생각과 느낌, 이후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마치 목격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과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조사는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험을 인식하는데 개인차가 존재하고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오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특히 가해 경험이 피해 및 목격 경험에 비해 응답률이 낮은 점은 이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조사의 의의는 강화하고 한계점은 보완한 학교폭력 관련 후속 연구가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부 록

\*참고문헌

\*설문지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3).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교육부 (2014). 201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2015).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 (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58(3), 6-41.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박민숙, 손석한, 서동향, 김세주, 최낙경, 홍상의 (2001). 초등학생에서 집단따돌림의 유형률과 이와 관련된 정신병리현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5), 876-883.
- 남미애, 홍봉선 (2015).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0(단일호), 109-144.
-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법제처 (20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4).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탐색, 2014 송파구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오세연, 김학범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 71-95.
- 오인수 (2014). 사이버 폭력의 이해와 효과적 대처 방안.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슈리포트*.
- 오주,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이규미, 지승희, 오인수, 송미경, 장재홍, 정제영, 고경희 (2014).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승하, 성기선, 안상희 (2012). 학교폭력의 현황과 실태, 원인분석-비교문화적으로 본 한국 학교폭력의 발생현황과 특징.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1-18.
- 전영실, 신동준, 박상희, 김일수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2.
- 전호성 (2015.08.27.). 초등 100명중 2명은 다문화학생.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3681](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3681)
- 전혜숙, 전종철, 정하은, 이주연 (2015).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 요인-중학생 비행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91-216.
- 황경익 (2012). 남·여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따른 방관적 태도 차이.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 Cho, Y., & Chung, O. B. (2012). A mediated moderation model of conformative peer bully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3), 520-529.
- Englander, E. (2013). *Bullying and cyberbullying: What every educator needs to know*. Harvard Education Press.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7*, 411-448.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315*, 341.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ama, 285*(16), 2094-210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tein, J. A., Dukes, R. L., & Warren, J. I. (2007). Adolescent male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A comparison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3), 273-282.

# 설문지

no.	
-----	--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본 설문지는 총 7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하는 문항 수는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설문 작성 예상 시간은 약 10~15분입니다. 설문에서 얻어지는 자료와 정보는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에 맞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질문들을 주의 깊게 읽은 후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가능한 솔직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본 조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잠깐!** 설문지를 작성하는 법을 읽고 가세요!

**하나. 답을 한 가지만 고르자.**

- ①②③④와 같이 번호가 있는 문항은 답을 딱 하나만 고르세요!

**【보기】**  ① 청소년  ② 학교  ③ 폭력  ④ 상담

**둘. 답을 여러 가지 고를 수도 있다.**

- [ ]와 같이 괄호가 있는 문항은 답을 최소 1개부터 모두까지 더 많이 고를 수도 있어요!

**【문제】** 여러 개 답하기 ... 고르세요.

**【보기】** [  ] 청소년전화 1388 | [  ]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꿈드림



## 제 2 부

■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폭행, 감금, 협박, 돈이나 물건 빼기, 언어폭력,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9. 우리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 \_\_\_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_\_\_ ② 심각하지 않다.    \_\_\_ ③ 중간이다.  
 \_\_\_ ④ 심각하다.    \_\_\_ ⑤ 매우 심각하다.

10.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 \_\_\_ ① 없다.    \_\_\_ ② 1~2명    \_\_\_ ③ 3~4명  
 \_\_\_ ④ 5~10명    \_\_\_ ⑤ 10명 이상

11. 우리 반에서 학교폭력 행동을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 \_\_\_ ① 없다.    \_\_\_ ② 1~2명    \_\_\_ ③ 3~4명  
 \_\_\_ ④ 5~10명    \_\_\_ ⑤ 10명 이상

12. **여러 개 답하기** 학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행동을 고르세요.

- [   ] 신체 폭행
- [   ]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기)
- [   ]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게임아이템셔틀)
- [   ] 집단 따돌림
- [   ] 언어폭력 (욕, 모욕, 명예훼손, 거짓소문)
- [   ] 위협과 협박
- [   ]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 [   ]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 성별에 상관없음)

**13. 여러 개 답하기** 학생들이 왜 학교폭력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고르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이 약해보여서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의 외모나 모습이 남들과 달라서 |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보복하려고   |
| <input type="checkbox"/>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 <input type="checkbox"/>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
| <input type="checkbox"/> 그냥 장난으로      |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     |
| <input type="checkbox"/>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 <input type="checkbox"/> 아무 이유 없음               |

■ 다음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았을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각각 표시하세요.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말해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아무 말도 안 한다.	①	②	③	④
2.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모르는 척 자리를 피한다.	①	②	③	④
3. 나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워 가만히 있다.	①	②	③	④
4. 괴롭힘 상황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한다.	①	②	③	④
5. 괴롭히는 아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가만히 있다.	①	②	③	④
6. 괴롭히는 쪽의 숫자가 더 많아서 겁이 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7. 괴롭힘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살핀다.	①	②	③	④
8. 괴롭힘 당하는 아이와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쳐다보기만 한다.	①	②	③	④
9. 괴롭힘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괴롭힘 상황에서 내 할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괴롭히는 장면을 보아도 평소대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괴롭힘에 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괴롭힘 상황이 내가 모르는 일이면 가만히 있다.	①	②	③	④
14. 괴롭힘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	①	②	③	④
15. 괴롭히는 아이와 당하는 아이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괴롭히는 아이와 당하는 아이가 서로의 잘못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괴롭히는 아이와 당하는 아이의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괴롭히는 아이와 당하는 아이가 서로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9. 괴롭히는 아이는 괴롭히지 말고 당하는 아이는 성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제 3 부

■ 다음은 ‘학교폭력목적’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폭행, 감금, 협박, 돈이나 물건 빼기, 언어폭력,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14. **최근 1년 간 다른 학생이 학교폭력피해를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 ① 1회 있다.                       ② 2~3회 있다.                       ③ 4~5회 있다.  
 ④ 셀 수 없이 있다.                       ⑤ 전혀 없다.

☞ 14번에서 ①②③④를 선택한 학생은 15번부터 계속 답을 해 주고,  
 ⑤를 선택한 학생은 제4부 18번으로 넘어가세요.

15. **최근 1년 간 피해당하는 학생을 보고 가장 많이 든 느낌이나 생각을 한 가지 고르세요.**

- ① 무섭다.                       ② 화가 난다.                       ③ 우울하다.  
 ④ 답답하다.                       ⑤ 재미있다.                       ⑥ 별 느낌/생각이 들지 않는다.

16.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가장 많이 보았던 학교폭력행동을 고르세요.**

- 신체 폭행
-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기)
-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게임아이템셔틀)
- 집단 따돌림
- 언어폭력 (욕, 모욕, 명예훼손, 거짓소문)
- 위협과 협박
-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 성별에 상관없음)

17.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피해당하는 학생을 본 후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고르세요.**

- 함께 말렸다.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었다.
- 부모님께 알렸다.                       선생님께 알렸다.
- 경찰에 신고했다.                       상담센터에 상담하였다.
- 모른 척 했다.                       같이 괴롭혔다.

## 제 4 부

■ 다음은 ‘학교폭력피해’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폭행, 감금, 협박, 돈이나 물건 빼기, 언어폭력,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18.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1회 있다.                       ② 2~3회 있다.                       ③ 4~5회 있다.  
 ④ 셀 수 없이 있다.                       ⑤ 전혀 없다.

☞ 18번에서 ①②③④를 선택한 학생은 19번부터 계속 답을 해 주고,  
 ⑤를 선택한 학생은 29번으로 넘어가세요.

19. 최근 1년 간 나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같은 반 학생                       ② 다른 반 학생                       ③ 같은 학교 선배  
 ④ 같은 학교 후배                       ⑤ 다른 학교 학생                       ⑥ 모르는 학생

20. 최근 1년 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 주로 몇 명인가요?

- ① 1명                                       ② 2~5명                                       ③ 6명 이상

21.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피해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나요?

- ① 전혀 없다.                               ② 1년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일주일에 1~2번                               ⑤ 거의 매일 마다

22.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피해 때문에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 ① 전혀 없다.                               ② 1년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일주일에 1~2번                               ⑤ 거의 매일 마다

23.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피해를 받고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얼마나 있나요?**

- ① 전혀 없다.                       ② 1년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일주일에 1~2번                       ⑤ 거의 매일 마다

24. **맨 처음으로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적은 언제인가요?**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1~3학년                       ③ 초등학교 4~6학년  
 ④ 중학교 1~3학년                       ⑤ 고등학교 1~3학년

25.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주로 겪은 학교폭력피해를 고르세요.**

- 신체 폭행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기)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게임아이템셔틀)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욕, 모욕, 명예훼손, 거짓소문)  
 위협과 협박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 성별에 상관없음)

26.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피해를 주로 당한 장소를 고르세요.**

- 교실     학교 가는 길                                       체육관  
 운동장     학교 매점/식당                                       화장실  
 복도     집 근처     학원  
 버스/지하철     노래방/PC방     놀이터/공터  
 인터넷/핸드폰     기타 장소 (    )

27.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피해를 주로 당한 시간대를 고르세요.**

-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점심 시간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방과 후

28. 최근 1년 간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나요?

- \_\_\_ ① 요청했다. (28-1번으로)      \_\_\_ ② 요청하지 않았다. (28-2번으로)

<b>28-1. 여러 개 답하기</b> 내가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을 고르세요.		
<input type="checkbox"/> 부모님, 가족	<input type="checkbox"/> 교사(담임, 과목)	<input type="checkbox"/> 위클래스 선생님
<input type="checkbox"/> 친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상담기관	<input type="checkbox"/> 경찰서
<input type="checkbox"/> 주변 어른	<input type="checkbox"/> 잘 모르는 사람(인터넷 등)	
<b>28-2. 여러 개 답하기</b>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고르세요.		
<input type="checkbox"/> 창피해서	<input type="checkbox"/> 혼날 것 같아서	<input type="checkbox"/> 소용없을 것 같아서
<input type="checkbox"/> 일이 커질 것 같아서	<input type="checkbox"/> 별 일 아니라서	<input type="checkbox"/> 복수할 것 같아서

■ 다음은 '사이버폭력피해'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29.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누군가에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 있나요?

- \_\_\_ ① 있다. (30번부터 답하기)      \_\_\_ ② 없다. (제5부 35번으로 가기)

30. 어떤 공간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했나요?

- \_\_\_ ① SNS(카톡, 페이스북 등)    \_\_\_ ② 채팅방(인터넷, 게임)    \_\_\_ ③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_\_\_ ④ 카페, 커뮤니티            \_\_\_ ⑤ 이메일                    \_\_\_ ⑥ 문자나 전화

31. 어떤 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았나요?

- \_\_\_ ① 욕, 상처 주는 말    \_\_\_ ② 협박                        \_\_\_ ③ 따돌림  
 \_\_\_ ④ 성적인 말이나 요구    \_\_\_ ⑤ 불러내서 괴롭힘

32. 가장 많이 피해를 준 대상은 누구인가요?

- \_\_\_ ① 같은 반 학생            \_\_\_ ② 다른 반 학생            \_\_\_ ③ 같은 학교 선배  
 \_\_\_ ④ 같은 학교 후배        \_\_\_ ⑤ 다른 학교 학생        \_\_\_ ⑥ 모르는 사람

33. 얼마나 자주 피해를 경험했나요?

- \_\_\_ ① 1~2회                    \_\_\_ ② 3~10회                    \_\_\_ ③ 10회 이상

34. 처음 피해를 받은 이후 얼마나 오래 피해를 경험했나요?

- \_\_\_ ① 1회적으로 당함        \_\_\_ ② 1달 정도                \_\_\_ ③ 3개월 이내  
 \_\_\_ ④ 1년 이내                \_\_\_ ⑤ 1년 이내 지속        \_\_\_ ⑥ 1년 이상 지속

## 제 5 부

■ 다음은 ‘학교폭력행동’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폭행, 감금, 협박, 돈이나 물건 빼기, 언어폭력,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35. **최근 1년 간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행동을 가한 적이 있나요?**

- ① 1회 있다.                       ② 2~3회 있다.                       ③ 4~5회 있다.  
 ④ 셀 수 없이 있다.                       ⑤ 전혀 없다.

☞ 35번에서 ①②③④를 선택한 학생은 36번부터 계속 답을 해 주고,  
 ⑤를 선택한 학생은 45번으로 넘어가세요.

36. **최근 1년 간 내가 학교폭력행동을 한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요?**

- ① 같은 반 학생                       ② 다른 반 학생                       ③ 같은 학교 선배  
 ④ 같은 학교 후배                       ⑤ 다른 학교 학생                       ⑥ 모르는 학생

37. **맨 처음으로 학교폭력행동을 한 적은 언제인가요?**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1~3학년                       ③ 초등학교 4~6학년  
 ④ 중학교 1~3학년                       ⑤ 고등학교 1~3학년

38.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주로 한 학교폭력행동을 고르세요.**

- 신체 폭행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 빼기)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게임아이템셔틀)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욕, 모욕, 명예훼손, 거짓소문)  
 위협과 협박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 성별에 상관없음)

39.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주로 어디에서 학교폭력행동을 했는지 고르세요.**

- |                                  |                                    |                                 |
|----------------------------------|------------------------------------|---------------------------------|
| <input type="checkbox"/> 교실      | <input type="checkbox"/> 학교 가는 길   | <input type="checkbox"/> 체육관    |
| <input type="checkbox"/> 운동장     | <input type="checkbox"/> 학교 매점/식당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
| <input type="checkbox"/> 복도      | <input type="checkbox"/> 집 근처      | <input type="checkbox"/> 학원     |
| <input type="checkbox"/> 버스/지하철  | <input type="checkbox"/> 노래방/PC방   | <input type="checkbox"/> 놀이터/공터 |
| <input type="checkbox"/> 인터넷/핸드폰 |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소 ( ) |                                 |

40.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주로 언제 학교폭력행동을 했는지 고르세요.**

- |                                |                                |                                |
|--------------------------------|--------------------------------|--------------------------------|
| <input type="checkbox"/> 쉬는 시간 | <input type="checkbox"/> 수업 시간 | <input type="checkbox"/> 점심 시간 |
| <input type="checkbox"/> 등교 시간 | <input type="checkbox"/> 하교 시간 | <input type="checkbox"/> 방과 후  |

41.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학교폭력행동을 한 이유를 고르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이 약해보여서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의 외모나 모습이 남들과 달라서 |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이 잘못해서  | <input type="checkbox"/>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보복하려고   |
| <input type="checkbox"/>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 <input type="checkbox"/>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
| <input type="checkbox"/> 그냥 장난으로      |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 화풀이하려고     |
| <input type="checkbox"/> 친구나 선배가 시켜서  | <input type="checkbox"/> 아무 이유 없음               |

42.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내가 학교폭력행동을 한 후 생긴 일을 고르세요.**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다.
- 학교 선생님에게 혼났다.
- 우리 가족(부모, 형제)에게 혼났다.
-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처벌을 받았다.
-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 상담기관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43. 여러 개 답하기 **최근 1년 간 학교폭력행동을 그만 둔 원인을 고르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뉘우침               | <input type="checkbox"/> 부모나 교사의 충고/꾸중    |
|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징계        | <input type="checkbox"/> 경찰의 처벌/징계        |
| <input type="checkbox"/> 함께 괴롭힌 친구/선후배와 사이 멀어짐 | <input type="checkbox"/> 학년이 바뀔, 전학, 졸업 등 |
|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처교육      | <input type="checkbox"/> 개인상담/집단상담        |
| <input type="checkbox"/> 지금도 가해 행동을 계속 함       |   |

44. **여러 개 답하기** 학교폭력행동을 한 후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었는지 고르세요.

- [ ] 쾌감과 재미를 느꼈다.
- [ ]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났다.
- [ ] 뒷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 [ ]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 [ ] 그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 [ ] 별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다.

■ 다음은 '사이버폭력행동'에 대한 사실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45. **최근 1년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힌 적 있나요?

- \_\_\_ ① 있다. (46번부터 답하기)      \_\_\_ ② 없다. (설문 끝)

46.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를 가장 많이 따돌리거나 괴롭혔나요?

- \_\_\_ ① SNS(카톡, 페이스북 등)    \_\_\_ ② 채팅방(인터넷, 게임)    \_\_\_ ③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_\_\_ ④ 카페, 커뮤니티            \_\_\_ ⑤ 이메일                    \_\_\_ ⑥ 문자나 전화

47. 어떤 유형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가장 많았나요?

- \_\_\_ ① 욕, 상처 주는 말    \_\_\_ ② 헐박                        \_\_\_ ③ 따돌림  
 \_\_\_ ④ 성적인 말이나 요구    \_\_\_ ⑤ 불러내서 괴롭힘

48. 가장 많이 괴롭히거나 따돌린 대상은 누구인가요?

- \_\_\_ ① 같은 반 학생            \_\_\_ ② 다른 반 학생            \_\_\_ ③ 같은 학교 선배  
 \_\_\_ ④ 같은 학교 후배           \_\_\_ ⑤ 다른 학교 학생           \_\_\_ ⑥ 모르는 사람

49. 얼마나 자주 피해를 주었나요?

- \_\_\_ ① 1~2회                      \_\_\_ ② 3~10회                    \_\_\_ ③ 10회 이상

50. 얼마나 오래 피해를 주었나요?

- \_\_\_ ① 1회                            \_\_\_ ② 1달 정도                    \_\_\_ ③ 3개월 이내  
 \_\_\_ ④ 1년 이내                    \_\_\_ ⑤ 1년 이내 지속            \_\_\_ ⑥ 1년 이상 지속

## 영등포구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응

인쇄일	2016년 8월 25일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발행처	영등포구학교폭력예방센터·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발행인	전윤경
편집인	강수정
감수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4길 15 유스스퀘어 올림관 2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young1318.com">www.young1318.com</a>
전화	02-2637-1318
팩스	02-2636-2071
이메일	<a href="mailto:yp26766114@hanmail.net">yp26766114@hanmail.net</a>
운영	영등포구

.....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